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60호

끊임없는 영성 고양이 인생의 주된 목표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7. 12. 23. 미국 워싱턴 D.C. 선사 (원문 영어)

DVD No. 604

모든 일이 순조롭더라도 우리는 늘 신이 우선이며 신이 우리의 진아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무릎을 꿇고 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설교하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신이 있다 해도 그는 우리의 숭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신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위대한 진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순탄하거나 물질적으로 행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는 다시 고통 속에 빠져 절규하며 신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뒤라 때가 늦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스스로를 일깨우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하기 전에 내면을 감동시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께 기도하려고 하십시오. 신께 기도하고 내면의 스승, 여러분 내면의 진아, 부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 누구에게든 기도하십시오. “부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라도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신실하지 않다면 하루 종일 소리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

분도 알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필사적이거나 스스로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알고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는 빛을 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이 빛을 보지 못하거나 빛을 보는 게 아주 어려웠다 해도 그때는 빛을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도하십시오.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과 수행, 아름다움, 진리, 영광을 추구하는데 있어 날마다 새롭게 힘을 다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안락함과 물질적인 삶을 누리며 이 물질세계에 영원히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신 또한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 몸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삼매에 들면 이 몸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 몸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아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신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신에게 물질적인 안락함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자 또한 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처, 다른 스승들이 얻었던 경지입니다. 우리도 그 경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스승님의 천상의 메시지가 전세계로 퍼지다

2001년 5월 포모사에서 방송을 시작한 뒤로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온 청하이 무상사의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이 2005년 10월 초부터는 네 개의 ETTV 위성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되어 포모사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더 많은 시청자들과도 만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CTi TV에서 방송되었지만 이제 포모사의 ETTV를 비롯해 ETTV 아시아, ETTV 아메리카, ETTV 라틴 아메리카 같은 3개의 해외 위성 채널에서도 방송됨으로써 해외 시청자들도 스승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ETTV 아시아는 중국, 어울락(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대한민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스리랑카,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27개국에서 수신할 수 있다.

ETTV 아메리카는 북 아메리카의 미국(하와이와 알래스카 포함)과 캐나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ETTV 라틴 아메리카의 ET-중국 위성방송 채널은 아메리카의 37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북 아메리카: 미국(하와이와 알래스카 포함)과 캐나다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포함한 8개국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를 포함한 13개국

*카리브 지역: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쿠바를 포함한 14개국

방송 편성표:

ETTV 오락 채널 (포모사, 채널 32) 일요일 오전 8:30-9:00 (타이베이 시간 기준)	ETTV 아시아 (유선/ 위성 방송 TV) 일요일 오전 10:00-10:30 (타이베이 시간 기준)	ETTV 아메리카 (유선/ 위성 방송 TV) 토요일 오전 10:00-10:30 (로스앤젤레스 시간 기준)	ETTV 라틴 아메리카 ET-중국 (유선/ 위성 방송 TV) 일요일 오전 10:00-10:30 (로스앤젤레스 시간 기준)
--	--	---	--

세계 곳곳의 위성 방송은 나라별 시간대를 기초로 방송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여러 나라/지역의 위성방송과 유선 TV 시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Godsdirectcontact.org.tw/tv/timetable.htm>

청하이 무상사의 다른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최근 편성표: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broadcast.htm (중국어, 영어)

'예술과 영성' 24시간 인터넷 TV 시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TV 방송용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통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759 <어울락어 + 다국어 자막>

고대의 어울락

1991. 3. 1. 텍사스 휴스턴 강연

1975년 세계를 뒤흔든 어울락의 비극으로 수많은 가정이 이별을 겪었고, 어울락 사람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전쟁 후, 3백 만이 넘는 어울락 인들은 조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유의 고귀함을 부르짖고 자비의 햇불을 밝혔으며 사랑과 자비의 꽃향기를 전세계에 전했다. DVD '고대의 어울락'은 어울락 민족의 고귀하고 고결하며 사랑이 넘치는 신실하고 훌륭한 본성에 관한 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편집한 것이다. 이 DVD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류가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내면을 성찰하며 스스로의 햇불을 밝혀 다른 이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무지를 없애 용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지구의 시민이 되고, 사랑과 깨달음과 지혜를 갖춘 신의 창조물이 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0호 3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0호

출판일자 : 2006. 3. 19.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끊임없는 영성 고양이 인생의 주된 목표이다

1 **칭하이 무상사 TV 프로그램**
포모사

1/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CD/ MP3/ 견본책자

3 **다채로운 이벤트**
포모사/ 홍콩/ 대한민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7 **행사 메모**

1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깨달은 상태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19 **스승님의 농담**
돌팔이 의사의 독특한 논리/ 양심에 찢려서/ 눈이 어지러워

20 **황금시대의 과학기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멀지 않았다

22 **신기한 감응**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 화신을 나투신 스승님

24/ 28 **골라 뽑은 수행 문답**
매일 죽는다는 것/ 관음법문 수행자는 매일 죽는다/ 양심과 고귀한 이상에 걸맞은 직업을 선택하라/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라

26 **지혜어록**
매일 내세를 준비하라/ '매일 죽는다'의 진정한 의미/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수행하라

30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차나 마시게!

31 **특별 보도**
동물 애호 스타들이 할리우드 PETA 25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하다

32 **초청장**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33 **채식 시대**
은막의 채식 영웅/ 영화배우 린다 블레이, 채식과 자비를 논하다/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을 줄일 수 있는 열쇠/
런던의 '채식 생선 튀김과 감자 칩'/ 채식주의를 지지한 저명한 과학자 및 발명가들/ 히말라야에 부는 채식 바람

46 **동물의 유정 세계**
야마고시 마을의 마리와 세 마리 강아지

48 **수행의 길목에서**
신의 뜻에 순종하면 자유롭다

49 **관음 웹사이트**

50 **사랑의 바다에서 온 물방울**
작은 선물로 깊은 사랑을 표현하다/
재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다

52 **사랑의 실천**
미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포모사/
인도네시아 영양 실조 어린이들과 미국 허리케인 이재민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58 **매체 보도**
로이터 AlertNet

60 **인터넷 속 작은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밀어라

67 **전세계 연락처**

72 **시**
사랑하는 당신의 은혜

포모사 소식



중추절에 스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시우] 우리 마음과 가슴속에는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래서 서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스승님과 우리는 같은 달 아래 함께한다. 황금시대 2년의 중추절인 9월 18일은 마침 일요일이라서 포모사 전역에서 3천 명의 동수들과 방문객들이 모였다. 이들은 시후 센터에 모여 단체명상을 하고 갖가지 공연과 야유회를 통해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이 날을 즐겁게 보냈다.

여느 때처럼 동수들은 아침에 단체명상을 하며 기운을 재충전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 숲 속 명상홀에 모여 수준 높은 공연을 즐겼다. 공연 가운데 타이중과 타이난에서 온 두 명의 동수는 지터와 얼후 연주를 통해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타이베이 동수들은 청중들을 이끌어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공연을 보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된 참석자들은 여러 센터의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채식 요리를 즐겼다. '과일 성배(聖杯)', '깨달음의 별', '5세계의 타로 케이크', '불성의 석가 케이크', '순수 우유젤리', '지혜 고구마 케이크', '성인 유기농 차' 같이 독창적인 이름이 붙은

음식들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모든 중생들이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경축’하는 중추절을 맞아 시후의 경축 행사에 참석한 동수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부지런히 수행해서 스승님을 따라 피안으로 가고 서로를 일깨우고 격려했다. 🍁





포모사 제자들이 스승님께 드리는 중추절 경축 카드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수정처럼 영롱한 달빛은 이 사바세계를 영원히 비추고
끝없는 당신의 신성한 사랑은
아홉 세계 모든 이들을 두루 보호하시네.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중추절 보내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달님이 우리 사랑을 스승님께 전해주시길...

2005년 9월 2일

당신의 충실한 포모사 자녀들 올림



대자연을 통해 세상을 배우다 - 2005 타이베이 가족 방학캠프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2005년 8월 3일과 4일, 타이베이의 많은 어린이 동수들이 부모님과 함께 타이베이 사랑의 바다 예술센터의 후원으로 타이베이 현 핑린 향 위광 초등학교에서 열린 '방학 학교-창의적 여행 학습' 활동에 참가해 포모사의 멋진 자연 환경을 체험했다. 핑린 향에 있는 위광 초등학교는 생태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산하에 자리잡고 있다.

구오승권 교장은 조물주가 빚은 아름다운 창조물을 함께 나누고자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가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방학 학교'를 고안했다.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탐험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핑린은 유명한 포모사 바이종차의 원산지이기도 해서 참가자들은 차 농장 견학을 통해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차 농사, 다도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1박 2일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방학 학교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자연의 교향악을 듣고 개구리와 여러 가지 새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등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시원하고 신선한 저녁 산속에서는 새의 노랫소리에 맞춰 개구리들이 느린 처음으로 합창하고 여기에 귀뚜라미와 다른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더해진 아름답고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교향악이 대기 중에 가득 울려 퍼졌다. '별에게 보내는 하늘 등(燈)'이라는 밤 활동에서는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신께 바라는 소원을 종이 등에 적어 하늘로 날려보냈다. 사랑으로 반짝이는 수많은 눈망울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등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가득 찼다.

다음으로 이어진 '영상 여행'이라는 시간에는 모두를 멋진 나비의 세계로 이끌어 애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었다. 아이들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창조물로 완전 변태 하는 것을 보며 신이 생명체를 창조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목격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 한층 넓어진 마음으로 창조물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숲 속을 5킬로미터 걷는 다음 여행 학습 졸업장을 받았다. 방학 학교 기간 동안 태

풍 마사가 포모사를 강타했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비와 폭풍 속에서 자신감 키우기'라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틀 간의 방학 학교 활동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모든 활동이 끝나자 참가한 동수들은 자연의 품에 안겨 많은 새로운 현상들을 탐험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를 해준 위광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워했다. 특별히 황주임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단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긍정적이며 모든 것을 기쁜 마음

으로 대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조금은 부족했지만 언제나 너그럽게 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즐거운 웃음소리가 위광 초등학교 주변의 계곡과 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포모사 파란 까치와 오색조의 매력적인 노래 소리가 깃가를 맴돌았으며, 맑은 계곡의 물소리가 동수들의 마음을 씻어 주었다. 동수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내년에도 다시 오자!”라고 외쳤다. 🐦

응비하는 여름 -포모사 북부 신입 대학생 동수 환영식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2005년 가을 학기는 포모사 북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새로 들어온 동수들로 신선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타이베이 사랑의 바다 예술 센터는 새로운 회원들을 환영하기 위해 타이베이 현 우라이에 있는 푸산 초등학교에서 이틀 간의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동수들은 하루 세 번의 명상과 주방 팀에서 준비한 채식 요리로 참가자들의 신·구·의에 영양을 공급하고 많은 흥미로운 그룹 활동들도 준비했다. 이를테면 ‘느낌 공유’ 시간에는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스승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기도 했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스승님의 전지전능한 사랑이 동수들을 한데

모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신선들의 대가족 같은 관음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었다. 또한 환영 춤 시간 동안 낙천적인 관음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청춘의 활력을 뽐내었다.

즐거웠던 이틀 간의 환영식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영성과 감정 모든 면에서 성숙해졌으며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신심도 더욱 강해졌다. 스승님의 축복과 동수들의 사랑을 통해 활기 넘치는 신입 동수들의 심신과 영혼이 더욱 강해져서 앞으로 사회와 세상의 기둥이 되기를 희망한다. 🐦





스승님의 사랑으로 생긴 새로운 명상 홀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신주] 보석과도 같은 스승님의 최근 강연에 고무된 신주 센터 동수들은 2005년 7월과 8월에 신주 시내에 위치한 'Follow Me' 경서 유통 센터의 명상홀을 확장했다. 원래는 12명밖에 못 들어가던 건물 2층이 이제는 8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비디오 시설이 잘 갖춰진 3개의 작은 방에서도 12명씩 명상할 수 있어서 동수들은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보다 멋진 단체명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승님의 최신 대형 법상과 스승님의 그림이 명상홀에 걸렸고 강연 비디오를 보여주기 위한 100인치 TV도 설치되었다. 이 밖에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천의를 전시하고 워크숍이나 다른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서게 되었다.

2005년 8월 19일 신주 센터에서는 지역 동수들과 손님들을 초대해 확장 공사 완공을 축하하는 조촐한 행사를 가졌다. 이제 동수들은 수요일

에는 주베이의 임대 센터에서 단체명상을 하고, 일요일에는 시후에서 명상을 하는 외에 주중에도 Follow Me 센터에서 함께 명상할 수 있게 되었다. Follow Me 센터는 금요일에는 철야 명상을 위해 개방되고 목요일에는 방편법 단체명상을 한다. 황금시대 2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히 수행에 정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홍콩 소식



[홍콩] 2005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제16회 홍콩 도서전시회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약 64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인원이 이 행사를 참관했다. 홍콩 센터 동수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 스승님의 책과 그림, 만세등을 전시하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해 갈망하는 영혼들이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센터의 부스는 행사장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잡

고 있었다. 하지만 동수들은 근처의 특색 없는 다른 부스들 때문에 우리 부스가 눈에 다 잘 띈다는 것을 알고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의 안배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부스는 화려하고 우아한 스승님의 법상과 그림, 만세등, 그리고 동수들의 정성 어린 장식 덕분에 한눈에 들어왔다. 천국과 같은 고요하고도 우아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관람객들은 우리 부스에 마음을 빼앗겼다. 중앙에 걸린 인류에 대한 스승님의 고귀한 이상이

적힌 스승님 법상을 보고 관람객들은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데, 누구지?”, “와!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벌써 스승이란 말이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오래도록 멈춰 서서 스승님의 사진을 오래도록 응시한 많은 이들의 영혼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

많은 관람객들이 스승님의 사진에 이끌리기도 했고 또 스승님의 비디오를 열중해서 보느라 TV스크린 앞을 떠날 줄 몰랐다. 비디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견본책자를 가져가거나 스승님 책을 구입했다. 견본책자를 읽은 몇몇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며 곧바로 홍콩 센터를 찾아가기도 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행사에 참가했던 모든 동수들은 일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스승님과 관련된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는 방문객들이 평소보다 많은 것을 보며 사람들의 영성이 고양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스승님의 책갈피와 전단지를 받자마자 주의 깊게 읽고 나서 소중하게 간직했으며 행사장의 조용한 분

위기는 사람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느낌을 주었다.

홍콩 동수들은 2005 홍콩 도서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스를 방문한 성인(聖人)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동수들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스승님을 믿고 의지하며 스승님의 비할 데 없는 큰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함께 와서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kr> (한국어)



대한민국 소식

교사를 위한 관음 명상 수련회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방학 동안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가진다. 교직에 종사하는 동수들이 많은 부산센터에서는 이번 방학 동안 비입문자인 교사들을 위해 명상을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부산 동수들에게 이런 캠프는 처음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부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초대장을 보냈다.

마침내 2005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교사를 위한 관음 명상 수련회가 부산 송정 해수욕장 부근 해양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장소가 넓고 사용하기 편했으며, 명상홀의 큰 창으로 긴장을 풀어 주는 쾌적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행사장은 소규모의 선을 하기에 최적이었다.

캠프 첫째 날, 환영 및 소개 시간을 가진 다음 전문 요가 강사인 사저 요가 강의로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요가 시간에 몸 풀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아졌고 참가자들은 금방 친숙해졌다.

그리고 저녁에는 부산 채식 식당에서 모든 이들에게 맛있는 채식을 제공했다.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채식의 중요성과 채식이 가진 사랑의 정신에 대한 강좌가 있었고, 이어서 스승님의 1992년 UN 강연 '이 세상 너머의 신비'를 시청했다. 비디오 상영 시간 동안 대부분의 교사들은 강연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리고 방편법을 배우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곧바로 방편 전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다과회와 함께 참가자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공학교수인 동수가 어떻게 물질계가 파동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또 우리의 토대가 되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학구적인 선생님들이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밤늦게까지 얘기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따라 산책한 참가자들은 연자죽으로 간단히 아침식사를 했다. 이어서 요가 스트레칭 시간을 가졌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한 뒤

방편 명상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오후 1시에 채식 식당 가족들이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채식 뷔페를 대접했다. 참가한 교사들은 정성어린 식사에 너무나 놀라워하며 감동을 받았다. 한 교사는 동수들에게 감사해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풍성한 점심식사와 함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참가자들은 떠나기 아쉬워 오랫동안 머물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부산 동수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이번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최는 스승님의 축복과 동수들의 합심된 노력으로 순탄하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동수들은 새로운 노력의 결과에 크게 고무되었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에게 채식과 관음 법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행사와 더불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로 했다. 🍱



복날 음식 문화 채식 캠페인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한국에서는 일 년 중 가장 더운 때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 삼복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과 보신탕 같은 각 가지 ‘보양식’을 섭취한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 기간 동안 많은 동물들이 희생된다.

말복이자 일요일인 8월 14일을 맞아 한국의 동물 보호 단체와 채식 단체들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명동에서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채식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웰빙 복날-채소와 콩고기로 몸보신하세요!”였다. 사단법인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서울 센터 동수들이 이 행사에 동참했고 서울 센터가 운영하는 SM 채식 뷔페에서 많은 양의 시식용 콩고기를 무료로 지원했다. 이에 다른 단체의 참가자들은 영양 많은 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수들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동수들은 채식 음식 나눠주기, 개고기 식용 반대 서명 받기, 동물 학대 방지 유인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장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준비된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종류의 콩고기와 그 맛에 놀라워했다. 방문객들은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이번 행사의 의도와 의미에 성원을 보내고 육식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개고기 식용 반대에 기꺼이 서명해주었다.

이번 행사의 주요 참가 단체인 동물 보호 협회 회원들은 앞으로 계속 채식을 하기로 결심했다. 동물 보호 협회 박소연 회장은 “이번이 우리 회

원들에게는 ‘하루 동안의 채식’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이 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먹지만 어떠한 생명의 희생도 없을 때라야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동물 학대와 소비에 대해 격렬한 시위를 해 온 동물 보호 단체의 회원들은 이번에는 시민들에게 채식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제 공하는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강한 신념을 홍보했다. 그러자 그 결과도 자연스레 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



다른 이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준 강연회

부산, 대구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경주]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이 도시에 스며들어 있는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는 개방적이면서도 신실한 이곳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해준다. 그래서 한국 남부 지역의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2005년 9월 11일 비디오 강연회를 경주 청소년 수련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9월 11일은 맑은 햇살이 눈부신 가을날이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스승님의 1999년 세계 종교 회의 강연 DVD와 1998년 『평화의



음악...하나된 세상』비디오테이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어서 청중들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를 주의 깊게 시청한 후 깊은 영적 갈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모든 질문에 대해 동수들은 최선을 다해 신중하고 신실하게 대답하며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질문을 마친 다음 참석했던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이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강연회 동안 몇몇 참석자들은 동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온화한 눈을 가진 한 중년 부인은 “저는 오랫동안 혼자서 올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 왔는데 스승님의 가르침에 강한 인연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 동안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의 깊게 보았고 행사장에 온 비구니 스님에게 스승님의 경서와 테이프를 추천하며 관음법문을 수행하라고 권했다. 그 스님은 자신이 진정한 법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강연 소식을 듣고 인연이 있음을 느끼고는 더 많이 알기 위해 강연장에 왔다고 했다. 또한 강연장에서 경서 관리를 담당하던 사저들은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가 청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연회가 끝나고 동수들이 짐을 정리해서 떠나려 할 때, 한 노부인이 강연장에 찾아왔다. 강연 포스터에 나온 시간을 잘못 보고 두 번째 강연이 저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그녀는 “스승님의 포스터를 경주역에서 보고 스승님과 강한 인연이 있음을 느꼈고, 몸이 불편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와야만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명상을 배우고자 하는 노부인의 신실함과 열정에 동수들은 30분간 추가로 방편 명상 전수 시간을 가졌고 그녀는 소원을 성취하곤 영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가 방편법을 전수 받을 때, 바깥에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 사람들도 저녁에 강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강연회가 끝난 것을 알고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관음법문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경주 강연회에서처럼 구도자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한국 동수들에게 그들의 진아를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다. 그래서 동수들은 자신들이 계속 성장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

일본 소식

맛있는 채식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다

일본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도쿄] 2005년 9월 3일과 4일, 일본의 도쿄 센터는 다른 센터 동수들

과 힘을 모아 UN 대학교와 인근 지역에서 개최된 ‘도쿄 채식 주간 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채식연맹(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 IVU)의 일원으로 2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채식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일

본 채식협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미나, 채식 요리교실, 요리와 영양학 전문가들의 강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다. 도쿄 동수들은 ‘채식과 평화’라는 전시 주제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동수들은 일본에서 관음법문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식에 통해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맛있는 채식의 준비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축제 기간 동안 동수들은 맛있는 채식 요리를 준비해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으며, 행사 둘째 날에는 첫날 왔던 친구들의 추천을 받은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관음 부스를 방문했다.

모두들 행사장의 따뜻하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승님의 축복과 은총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많은 방문객들과 전시 주최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묻고 견본책자와 채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젊은 방문객들과 외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들은 스승님의 책자를 받고 좋아했다. 그들 가운데 예전부터 스승님을 알고 있던 두 명의 미국인도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스승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며 기쁨으로 충만되었다. 그는 이번에 스승님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얻게 된 것에 기뻐했다. 또 한 사람은 주최측에서 초청한 강연자였는데 그는 관음 부스에서 스승님의 법상을 보고 기쁨과 놀라움을 표하며 “저는 친구 소개로 스승님을 알게 되었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도 봤습니다. 전 스승님의 가르침에 매우 동감합니다.”



라고 말했다.

도쿄 채식 주간 축제가 끝날 무렵, 행사 주최측은 각 부스의 책임자를 초대해서 자신들이 속한 단체를 소개시켰다. 한 동수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 주최측은 명상에 관심있는 분은 우리 단체와 연락을 취하라고 열성적으로 제안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동수들을 감동시켰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한편 더 열심히 수행하고 계속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스승님의 인도와 지원, 관심에 보답하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소식

메단 도서 전시회에서 궁극의 진리를 소개하다

메단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메단]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2005년 8월 31일에서 9월 4일까지 새로 지은 메단 최대의 쇼핑 몰인 아트리움 플라자(Atrium Plaza)에서 열린

메단 도서전시회에 참가해 부스를 차리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스승님의 출판물과 강연 DVD를 전시했다.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동수들의 부스에도 계속해서 방문객들이 밀려왔고 대부분 사람들이 명상



과 수행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였다. 몇몇 방문객들은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스승님의 출판물을 구입하기도 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메단 센터는 2주 동안 일요일에도 센터를 개방해 우리 부스를 방문했던 새로운 구도자들을 맞이했다. 센터에서는 손님들에게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보여 주고 동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관음법문과 우리 단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메단 도서전시회에 참여했던 모든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스승님의 크나큰 은총과 축복을 느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해 주시고 동수들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도울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또한 끊임없는 수행 진보를 통

해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기도했다. 🙏



미국 텍사스 소식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가 휴스턴을 가득 채우다

휴스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유프턴] 2005년 7월 24일, 휴스턴 지역 동수들은 찢는 듯한 여름 동안 휴스턴의 노숙자들이 갈아입을 충분한 옷을 나눠주기 위해 '사랑과 어부 노숙자 쉼터(Love and Fisher Shelter)'에서 옷 기증 행사를 열었다. 동수들이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옷, 신발, 개인 위생용품들을 나누어주자 그들은 스승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매우 감동했다. 그리고 동수들은 11월에 이곳을 다시 방문해 그들에게 채식 요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7월 30일에는 화교 사회 공원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2000년 필리핀 마닐라 강연인 '환상은 실제의 반영이다'를 상영하는 한편



손님들에게 맛있는 채식 요리도 제공했는데 모두들 매우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 몇 사람은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다.

옷 기증 행사와 강연회가 열리는 동안 행사장은 평화와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했고 두 번의 행사 모두 스승님의 안내로 순조롭게 끝났다. 이번 행사로 고무된 휴스턴 동수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한편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



아르헨티나 소식

스승님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고원 주민들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멘도사] 멘도사(Mendoza)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쪽으로 1200km 떨어진 안데스산맥 산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대도시이다. 2005년 7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터의 동수들은 이곳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어 이곳 시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겨울인데도 봄처럼 따뜻한 날씨 덕분에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 당일, 멘도사의 교외인 루한(Lujan)의 '악티바 라디오(Activa Radio)' 방송국의 기자와 많은 방문객들이 인근 지역에서 참석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멘도사에서 180km나 떨어진 산후안(San Juan) 같은 먼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행사장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한 여성은 견본책자를 가져 가며 동수들에게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스승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했다.

비디오 강연회가 열리는 동안 방문객들은 주의 깊게 스승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강연회가 끝난 다음 3/4 가량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몇몇 사람들은 좋은 체험을 하기도 했다. 강연회 다음 날 예술가이자 기자인 홀리안 산탄드레우(Julian Santandreu) 씨가 멘도사의 마사 대학(Maza University)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동수들을 초청했다. 거기서 그는 여름에 다시 강연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대학의 주 강연장과 세미

나실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산탄드레우 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산후안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자기 아들을 만나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며칠 후 자신의 집에 와 달라고 했던 멘도사의 여성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관음법문을 배우길 원한다고 알려왔다. 그래서 멘도사에 사는 한 사저가 그 부인의 집에서 워크숍을 열었는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웠고 이후로 정기적으로 방편법 단체명상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멘도사 비디오 강연회와 그 뒤에 흥법 모임에 참여했던 동수들은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에 놀랐으며 그 모든 것이 스승님의 절묘한 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행사를 통해 새로운 영성의 지평선이 열렸으며 지역 구도자들이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수행의 길이 펼쳐졌다. 🌻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깨달은 상태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3. 11. 27.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97

호기심은 마음의 천성이다

우리 대부분은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답을 얻든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많은 질문 중에는 한 번도 그 대답을 들은 적이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라면서 선생님이나 친구, 많은 현인들에게 물어봐도 역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 또한 이른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많은 의문이 있었고, 깨달은 후에도 처음에는 아주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런 의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지요.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갖거나 집착하는 몇몇 질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성장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좀더 고요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도 더 차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할 때면 항상 최선을 다해 답해 주

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답을 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그 수준을 뛰어 넘는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전에는 수많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답을 해줘도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항상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 늘 무언가를 캐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날마다 좋고 나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불행, 불만족, 선입견, 분별심의 대부분은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호기심 많은 마음의 천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함

니다. 왜냐하면 아무 분별 없이 선택하면 가끔은 정말 옳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학설, 철학 개념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우리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다른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지요. 그러면 나중에 더 정확하고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를 접하더라도 그것을 배척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기록돼 있는 개념이나 이론들이 그 새로운 정보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종교와 국가와 이웃 사이에 미움과 차별, 분쟁과 같은 나쁜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 가르침, 관념을 받아들여진 우리는 먼저, 아니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영적인 성장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상과 다른 단체, 서로 다른 사고 체계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아주 애먹을 것입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심사숙고해 보지도 않고 아무것이나 믿어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해 봐야만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학이니까요. 최고의 과학이지만 그래도 과학은 과학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스승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우주 만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과학으로 인도하며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도 스승이나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의 스승은 되지요.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자신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신의 힘,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던 우주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지요.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거짓말을 하고 신성을 모독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가 신과 하나이며 신의 아들이고 그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잊은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때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원 안에 신말고는 어느 누구도 거하지 않는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영혼은 결코 윤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사실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 다. 우리에게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존재해 왔던 그것이 ‘나’라면 여러분이 ‘나’, ‘그녀의’, ‘그녀’ 혹은 ‘그’라고 부르는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지요? 여러분은 한 아기를 ‘나’, ‘그’ 혹은 ‘그녀’라고 하는 존재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자라면서 우리는 선생님과 친척, 친구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개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화를 잘 내는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화내고, 색을 밝히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 다. 막 태어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 데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람들에게 윤회 이론을 가르쳐선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윤회하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수집한 옳고 그른 정보에 집착하는 성향일 것입니다. 이 집착하는 성향 때문에 우리는 전생에 이루지 못했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도구에서 또 다른 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에 거하던 지식, 지혜, 신성이 이 사원을 떠나거나 빠져나가면 그, 그녀, 그것은 다른 사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주에는 어떠한 개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원처럼 드넓은 사랑의 에너지 덩어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때로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구나 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그 전류는 마이크에도 흐르고 마이크와는 모양이 다른 냉장고, 선풍기에도 흐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전류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최고의 존재, 가장 높은 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고의 존재'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수집한 정보와 습관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개인이라는 '나'가 생기고 나와 우주 전체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고쳐 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든 또는 영적인 친구를 통해서든 깨닫고 난 후에는 사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비록 저마다 자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긴 해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나 더 이상 질문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이니까요! 깨달으면 좋거나 나쁘다는 분별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뇌의 분별심을 넘어서게 되지요. 그러면 "아! 그건 단지 내 껍질이고 옷이었을 뿐이야. 나는 여기 있어!"라고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의 지식이나 소유물과 동일시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 비해 명상을 하기도 어렵고 높은 지혜를 얻기도 더 어렵습니다.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씻어낼 것이나 풀어야 할 매듭이 더 적기 때문이지요. 마치 집 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기 위해 청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다면 더 빠르지요.

마음과 친구가 되라

그러므로 한 생애 해탈할 수 있다고 믿기란 아주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해탈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줄곧 해탈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

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지식이나 습관의 덩어리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사실 깨달은 사람들, 총명하고 차원 높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강연이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 한 구절이면 충분하며 그것 또한 일종의 즉각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달은 상태였고 늘 깨달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분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만 하면 이런 깨달음은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매우 편하고 고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인 수준의 깨달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돈오(頓悟)' 또는 '즉각적인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스승의 한 마디가 여러분을 조금 깨닫게 하거나 또는 완전히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는 계속 명상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에게 지난 생부터 쌓인 습성과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체험만으로는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을 확실하기에 부족합니다.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면 잊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닫는 체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말입니다. 영혼이나 진아만 자신의 깨달음을 인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진아는 줄곧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위대한 진아는 이미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컴퓨터와 같은 두뇌라는 도구를 사용해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 혼란한 세상에 축복과 사랑의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음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은 세세생생 우리가 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우주적 지위를 알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마음과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왜 이런저런 일을 하는지 마음에게 알려 주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우 행복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상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해도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명상하기 위해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왜 앉아 있지? 무엇 때문에? 난 영화 보러 가거나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 넌 왜 여기 바보처럼 앉아 있는 거야? 커피가 더 좋아. 케이크도 괜찮아.”와 같은 온갖 것들을 물을 테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침묵 속에서 전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하기 좋아하는 마음의 천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말로도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은 항상 질문하기를 좋아하고 저울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접수한 것이 전에 입력된 정보와 상반되거나 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은 그것이 서로 다르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 때문이지요.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이 마음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되고 서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걸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깨닫고 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신이 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큼 아주 간단한 일이지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환상의 왕이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잡아두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그렇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을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여러 차례 놀랄 것입니다.

선생, 스승 또는 영적인 친구가 말로 전하는 가르침은 수행의 이론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이 어떤 사람을 새로운 어린 친구나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다음 24시간 내내 침묵 속에서 전수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스승이든 그의 이론적인 가르침은 전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론만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계율을 지켜야 하고, 폭력 대신 사랑을 베풀고 흠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뉘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겠지요. 스승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이론적인 가르침은 제자들이나 스승의 설법을 들었던 이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손들은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을 찾기 위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 이 기록된 정보에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 지식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들은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움켜잡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고 부처가 오기 전에는 불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교도(Buddhist)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음’을 가리키는 붓다(Buddha), 보리(Bodhi)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부처(Buddha)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Christ)는 헤브라이어로 깨달은 사람을 뜻합니다.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존칭한 거지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돌아간 다음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부처가 떠난 다음에 불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다 Christ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기도 쉽고 서로 연관시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보리’라는 말에서 나왔으므로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교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도(道)를 가르쳤던 노자(老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도교가 형성되었고 도교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교가 벌써 세 개나 되는군요. 골치 아프지요! 옳든 그르든 우리는 저마다 배우고 싶은 종교를 추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철학적인 차이로 서로 언쟁하고 다투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승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승들은 언제나 평화와 정직,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기독교를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든 불교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진리라고 믿든 우리는 언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진정한 종교를 이해하고 부처와 도교의 스승, 그리스도가 남긴 진정한 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고 최고이며 가장 빠른 길이 깨달음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스승은 우리를 깨달은 자아와 다시 연결한다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개인의 신실함과 갈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설령 우리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모든 길을 여기저기 가 본 살아 있는 친구, 살아 있는 스승이 해결해 줘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적인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여느 길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지혜는 너무도 광대해서 결코 한 순간이나 한 생애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다 마쳤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의 미래를 아는지, 또는 그들의 미래를 아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현재만을 보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뿐입니다. 내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나는 필요할 때는 미래나 과거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필요하고 이 세상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은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많이 안다면 부담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음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있는 그대로만

보십시오. 바로 우리는 항상 진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필요할 때 모든 답을 얻을 것입니다. 스승에게 편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입문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승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로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의 반이라도 믿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항상 튀어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이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내가 신을 멈추게 하는 걸 잊으면 신은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자신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 친구를 찾아간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알려주고 자신이 여러분의 진아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만간 빛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빛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야 할 많은 일과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작은 문제들을 위대한 지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채 그냥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갇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면, 또는 그 문제에 온통 집중하는 대신 한 발자국 물러나 우리가 그 문제 자체가 아님을 기억한다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누가 대장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



돌팔이 의사의 득득한 논리

청하이 무상사/ 1996. 3. 28. 캄보디아 프놈펜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541

한 돌팔이 의사가 있었는데 항상 자신의 치료 능력이 신과 같이라며 으스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와서 물었지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소?” 그러자 그 의사는 “누구든 내 말만 들으면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노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 손자에게 당신이 지어준 약을 일 년 동안 먹기만 하면 다 나을 거라고 말했던 걸 잊었던 말이지요? 내 손자는 당신이 처방한 약을 먹고 3개월 만에 죽었소!” 그러자 그 돌팔이 의사는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아!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군요! 난 그에게 일 년 동안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는 겨우 3개월만 약을 먹었군요.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을 다 먹지도 않았으니 죽은 게 당연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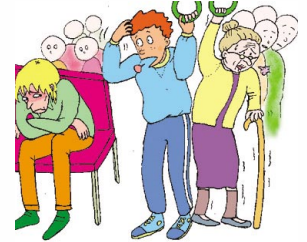


이심에 쫓겨서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한 청년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버스에 탔습니다. 승객들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버스 손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는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앉아 있으면서 내내 팔에 얼굴을 묻고 있어서 어딘가 아주 불편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 버스에 탄 청년이 다가가 “당신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앉아 있던 청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더욱더 깊숙이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서 있던 청년은 여전히 앉아 있는 청년이 괜찮은지 마음이 안 놓여서 다시 물었죠. “정말 괜찮아요? 왜 머리를 묻고 있죠? 아주 안 좋아 보여요.” 그러자 앉아 있던 청년이 대답했어요. “예, 전 괜찮아요. 단지 앉아 있는 동안 서 있는 할머니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누이 어지러워!

청하이 무상사/ 1999. 11. 29.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선삼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4

한 남자가 밤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평을 해댔지요. “목마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자 술에 취한 남편이 말했어요. “글쎄, 나도 당신을 이해할 수 없구려. 왜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당신은 당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네 명이나 집에 데려오는 거요?”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0/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0/jk1.htm> (포모사)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멀지 않았다

린 맥기 사저/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몇 종류의 비행 차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일부는 생산이 완성돼 시험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 차 발명가인 로빈 헤인즈(Robin Haynes)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차에 올라타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위성항법장치(GPS)가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도로 구획에서 시작해 공중 구획을 날다가 다시 도로 구획으로 돌아오겠지만, 이런 건 신경쓸 게 못 되지요. 175마일 거리라 해도 한 시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테니까요. 그것도 문 앞까지 말이죠!”

이것은 마치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비행 차는 더 이상 이야기책에만 나오는 꿈이 아니다. 현재 나와 있는 종류는 가벼운 초경량 모델인 에어 스쿠터 (Air Scooter)부터 더욱 견고하고 정교한 스카이 카(Skycar)까지 있다.

에어 스쿠터는 레저 스포츠 비행 차로 400피트(122미터) 이하의 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고층빌딩 구

조와 같은 긴급 상황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스카이 카는 4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고도 4,000피트(1.22km)에서 시속 300마일(시속 482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현재 NASA에서는 이를 위한 비행 시뮬레이터와 GP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초경량 비행 교통수단인 '에어 스쿠터'.

그러나 이 차들의 설계만으로는 이 차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차가 길을 따라 주행하다가 하늘로 이륙할 수 있다 한들 운전자가 어디로 비행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NASA에서는 ‘하늘 고속도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비행차량을 위한 중앙관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차량마다 장착된 개별 시뮬레이터는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따라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이런 시뮬레이터는 공중 교통관리를 위해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그러나 스카이 카의 설계자인 폴 몰러(Paul Moller)는 비행 자동차 여행은 일반적인 느낌과는 완전히 다



‘스카이 카’

- 시속 300마일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비행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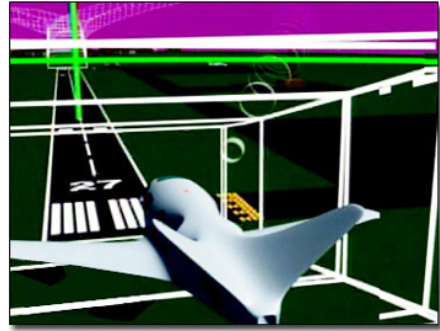
르다며 “이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은 정말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기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차를 타면 어떤 진동도 없이 위로 떠오릅니다. 가장 흥분되는 것은 거의 중력이 없는 것처럼 아래서 위로 떠오르지만 정말 부드럽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법의 양탄자를 탄 것처럼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보다 발달된 미래의 과학 기술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을 반영한다. 스승님은 다른 행성 출신의 영혼들이 진보된 과학 기술을 지구인들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고등 행성의 발전된 수준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레이저와 여러 형태의 빛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내가 포모사에서 했던 초창기 강연 가운데 보다 진보된 행성에서는 광선치료법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과학자들이 지금 이 행성에 태어나면서 그들의 값진 기억들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안락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행성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곧, 아마도 몇 년 안에 날아다니는 차 같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 체증이 없어져 서로 만나기가 쉬워지고 통근 시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도 아주 흥분되는 일입니다.” (뉴스잡지 138호 <스승님의 말씀> 중에서 발췌)

일찍이 1985년, 스승님께선 이러한 존재들이 고도로 발달된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며 그들이 수행했던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진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법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금성에는 온갖 사람들을 치료하는 작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성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매우



NASA가 개발한 시뮬레이터.
그림 중 비행 ‘윈도우’가 비행 차량의 비행 운전을 인도한다.

총명하고 영적이며 경지가 높아서 거의 대부분이 ‘스승’의 지위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들은 약물이나 도구가 아닌, 다양한 에너지의 광선, 빛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X-레이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듯이 말입니다. 이 중생들은 비교적 높고 뛰어난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 또한 더 수준 높은 과학자인 셈이지요.” (뉴스잡지 139호 <당신은 모르실 거야>에서 발췌)

비행 자동차 발명가들은 매우 겸손하며 자신을 깨달음의 가능성으로 충만된 미래를 가진 보다 큰 통일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비행기나 제트기들이 역사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하늘 고속도로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날아다니는 기기로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라는 한 발명가의 말처럼 말이다.

지구로 오기 전에 빛으로 치료했던 영혼들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은 우리가 황금시대로 전진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일부분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신의 은총으로 우리 지구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많은 기술적인 진보들 가운데 한 가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비행 자동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cbsnews.com/stories/2005/04/15/60minutes/main688454.shtml>

<http://www.haynes-aero.com/Netscape/frames.html>

<http://www.moller.com/>

<http://sats.nasa.gov/>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 화신을 나투신 스승님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 나는 중국에 있는 세 개의 주에서 지명수배를 받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 그러던 1989년 내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나고 한 달 뒤 나는 자신이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완전 채식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를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폭력 조직의 동료들은 나에게 “네 자신을 봐! 나쁜 짓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채식하는 척하는 거야? 차라리 그만 뒤 버려!”라고 했지만 나는 항상 “서른 살이 되면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스승을 찾고 수행할 곳을 찾아갈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그 사이 많은 폭력배들이 도망을 다니거나 죽거나 감옥에 갇고 남은 조직원들은 여전히 나쁜 짓을 계속했다. 그러던 1995년 12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체포되었다. 그러나 스승님의 은총으로 며칠 동안 유치장에 잡혀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곳 이발사가 자신이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 책은 바로 스승님께서 포모사에서 강연하신 내용을 편집한 『즉각 깨닫는 열쇠』 제3권이었다. 그 책이 사람들을 깨우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찾게 안내해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책을 꼭 빌려가고 싶었다. 내가 그녀에게 계속해서 간청하자 마음이 약해진 이발사는 하루 밤 빌려 줄 테니 다음 날 꼭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책을 펼치자마자 나는 논리적이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스승님의 말씀에 매료

되어 저녁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읽었다. 이분이 내가 찾던 스승이며 내 남은 생을 스승님을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포모사 본부에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입문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나는 한 사저에게서 스승님의 경서 몇 권을 빌려 읽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스승님의 영적 자양분을 갈망하는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도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스승님의 경서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자원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스승님의 책과 잡지들을 가져오곤 했다.

1996년 4월 28일, 나는 시후 센터로부터 침묵 속에 기도하며 안심하고 기다리랴면서 관음사가가 나를 찾아갈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편지를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곧장 스승님의 책을 빌려 주었던 사저의 집으로 달려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잘됐다고 하며 같이 기뻐해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문할 때 받았던 귀중한 축복과자인 튀밥과 각설탕을 나눠주며 한 번에 튀밥 한 알과 사탕 한 조각만 먹으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탕 한 조각과 튀밥 한 알을 먹고 집으로 향했다. 사저의 집을 나서면서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50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축복과자를 먹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나는 남은 사탕과 튀밥을 모두 다 입안에 쏟아 부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

이 일어났다! 마치 중력이 없어진 듯 온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하늘을 쳐다보니 매혹적이고도 아름다운 붉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옴’ 소리만 크게 들렸다. 마치 진공의 세계로 들어간 듯 내 주변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정신이 들자 찰나의 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7시가 다 돼 가고 있었다. 사저의 집에서 5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을 한 시간이 넘도록 견고서도 도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환상적인 체험을 통해 나는 축복음식의 신기한 힘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화신 스승님을 목격하다

두 달 뒤, 두 사저가 우리 집에 와서 예비 입문자들이 입문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접하기로 했다. 나는 전화가 없는 두 명의 예비 입문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손님 대접도 하기 위해 채소와 과일도 살 겸 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 두 예비 입문자 중에는 내게 스승님의 책을 빌려준 이발사도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날씨는 매우 더웠다. 나는 이발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지만 운전사는 비 때문에 매우 느리게 운전을 했다. 작은 다리를 지날 때, 고대의상인 듯한 하늘색의 벨벳 바지에 같은 천의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다리 근처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같은 색, 같은 천으로 된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에는 은백색의 보석이 박혀 있었다. 날씨를 고려할 때, 그녀가 입은 옷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더욱 이상했던 점은 그녀가 금으로 된 손잡이에 흰 난초 문양이 그려진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데도 우산을 펴지 않은 채 지팡이로만 짚고 있었다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와 나는 그 숙녀가 정말 이상하다고 여기면서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지나쳐 갔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나는 운전기사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고서 이발사와 다른 예비 입문자에게 면접에 대해 알려준 다음 과일과 채소를 샀다. 일을 다 마치자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비가 오고 있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차가 다시 그 작은 다리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숙녀가 아직도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는데도 그녀는 한 방울도 비에 젖지 않았다. 그때 기사가 물었다. “왜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택시는 내가 그녀와 바로 마주볼 수 있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 스승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고 그 순간 화신 스승님이 사라져 버렸다. 시야 반경 500미터 거리는 명확히 보였는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화신 스승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스승님, 이생에서 이 우둔한 당신의 자녀를 하루빨리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빗속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군요. 그렇다면 대체 지난 수많은 생 동안 길 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인내심을 베푸신 건가요!’

두 달 뒤 내 나이 서른 살이던 1996년 8월 22일, 나는 마침내 입문해서 소원을 이루었다.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다. 그저 이 마지막 남은 생 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청하이 스승님의 뒤를 바짝 뒤따를 뿐이다. 🙏



매일 죽는다는 것

청하이 무상사/ 1989. 10. 27.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1D

질문: 삶의 목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면 죽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이 육신은 그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낡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보다 적합한 다른 육체를 가져야 합니다.

질문: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는 건가요?

스승님: 아닙니다.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옷을 갈아입을 뿐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오늘 파란 셔츠를 입었는데 이를 동안 입어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빨겠지요. 아니면 옷이 너무 낡았을 경우엔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겠지요. 그와 같습니다. 옷을 갈아입듯 육신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질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스승님께선 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음 생에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까?

스승님: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의 행위와 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를 통제하고 싶다면,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자신의 가장 위대한 지혜와 힘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질문: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고 통제력이 있는 겁니까?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통제력을 되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위대해져야 합니다.

질문: 스승님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스승님: 나는 매일 죽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스승님: 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질문: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예, 그럼요!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삼매에 들면 이 세상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죽는다는 것은 정신의 정화를 뜻하니까?

스승님: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 정화일 뿐 아니라 육체적인 면도 포함합니다.

질문: 육체적으로도 죽는다고요?

스승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연결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때가 죽는 때이고 돌아오면 다시 연결됩니다.

질문: 스승님은 왜 그렇게 여러 번 죽으려 하십니까?

스승님: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살기 위해 죽는 겁니다.

질문: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매일 죽는다.”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스승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잠시 동안 만나절이나 몇 시간 정도 이 물질세계와의 연결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일을 계속 합니

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길 원한다면 다시 돌아와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



관음법문 수행자는 매일 죽는다

청하이 무상사/ 1995. 3. 17. 미국 캘리포니아 KQSB 라디오 '노바스 리포트(Novas Report)'와의 전화 인터뷰 (원문 영어)

질문: 스승님, 스승님 책 가운데에 “당신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스승님: 등급이 좀 높은 수행자들은 소위 죽음이란 것을 모릅니다. 그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일 뿐이지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방은 언제나 전에 있었던 방보다 더 좋지요.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의 왕국에는 많은 저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곳에 많은 의식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주에는 아름다운 경계가 아주 많으며 우리는 그저 전의 낮은 차원이나 낮은 수준을 떠나 위로 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죽음’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의 저택들을 경험하지 못해 봤다면 다소 어두운 곳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의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결코 죽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스승님은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스승님: 예, 문제없습니다. 매일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스승님의 제자들도 명상을 통해 죽음을 경험합니까?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 경험합니다.

질문: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것입니까?

스승님: 오, 당신이 그 말을 기억하다니 정말 기쁘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세계를 버리지 않고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젠 당신이 외투를 밖에 두는 것처럼 자신의 외투를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



매일 내세를 준비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9. 11. 27.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9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물질세계를 떠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요. 우리 가운데 몇몇은 아직 나처럼 젊지만 벌써부터 이 세상을 떠날 그 무서운 날을 걱정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해 두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질병이나 집, 용자, 그 밖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 놓지만 정작 이 세상을 떠날 그 날을 위해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을 위해 육체를 버릴지어다. 죽는 법을 배우면 곧 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날마다 읽거나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읽을 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 몇 번이고 선택하면 되니까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법이 아닌, 죽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똑바로 죽음에 직면하는지 배워야만 더 이상 미지의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게 되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아니 훨씬 더 좋아지고 더 자유롭게 됩니다. 우린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그 즉시 가질 수 있으며 세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란 것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절실히 바라는 것은 모두 실현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 우리가 미련을 가졌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망대로 바라던 바를 이루기 위해 다시 이 물질세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지 않거나 이번 생 이후 미래의 운명을 손에 넣고자 한다면 그것을 준비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언가에 대한 생각이 아주 절실하다면 우리는 그것, 그 사건 또는 그 갈망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런 사고방식이 제2의 천성이 되거나 우리 자신이 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신의 본질이 있으며 우리 안에는 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사실 대단히 강력합니다. 🌸

‘매일 죽는다’의 진정한 의미

청하이 무상사/ 1998. 6. 2. 미국 캘리포니아 앨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23

‘매일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죽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죽음일 뿐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고대 성인들의 수행 방법을 따르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또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이 물질세계 외에 다른 삶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우주의 신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별적 아님을 알게 되지요. 사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육신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수행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7. 4. 26. 싱가포르 (원문 영어)
DVD No. 603

우린 종종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집착과 욕망, 야망은 없어질 것이며 날마다 죽음만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실하게 명상하며 우리의 진아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육체를 떠날 때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갈 집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



양심과 고귀한 이상에 걸맞은 직업을 선택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6. 3. 14.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37b

질문: 과학이나 의학을 연구하면서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동수들은 과학 연구와 불살생의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까?

스승님: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은 해부 실험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동안 수행을 하고 나면 동물의 고통에 대해 아주 민감해집니다. 동물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으며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그러나 그것이 일의 일부분이라서 직업을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그러면 바꾸십시오.

질문: 스승님은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약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방법은 많습니다. 고대에는 약을 시험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사람들은 온갖 것들에 동물을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정말이지 자기 자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

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지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정말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 화장품 실험 등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물 실험 없이 만들어진 화장품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이는 뭔가를 위해 동물을 희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물론 내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 모두를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생명을 위해 살생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시작된 생명이라면 또다시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의 시체로 우리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화장품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음'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이런 제품들은 동물 실험을 한 제품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값도 더 싸서 경제적이며 우리 피부에도 더 잘 맞아서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더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지요. 그러므로 사실 동물 실험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잘 알고 있듯이 동물 실험을 거친 많은 약들이 사람에게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을 합니다. 아마 의도는 좋았겠지요. 마치 푸줏간 주인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동물들을 죽이듯이요.

질문: 그것은 다만 어떤 의약품 개발을 위한 요구 조

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당신은 직업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인생을 선택하든지요. 만일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양심을 저버리고 그 직업을 계속 따르십시오. 그러나 자신이 고귀한 인격과 훌륭한 생각을 지닌 평화로운 존재들의 단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양심과 고귀한 이상에 보다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신을 사랑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9. 5. 26.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0

질문: 육식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명상을 해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명상이 제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스승님: 아니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체도 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하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빛을 볼 수는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 가고자 한다면 짐이나 쓰레기를 더 줄여야만 합니다. 육체를 정화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독을 삼가야만 합니다.

질문: 제가 결국 채식을 하게 되면 명상이 저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까요?

스승님: 당신은 지금 흥정을 하고 있군요! 우리는 온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세상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기로 했다면 왜 빨리 가지 않는 것입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장이 아주 낮은 동물 에너지를 섭

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우리를 끌어내려서 때문에 올라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곁에 있고 싶다면 우리가 사랑과 비슷해져야 하며 스스로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의식이 거의 없을뿐더러 가지 하나를 자르면 가지 세 개가 더 자라납니다. 반면 돼지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 세 개 더 나오지는 않지요.

신이 우리가 먹는 것에 관여하거나 우리에게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과 가까이 있고 싶다면 이런 생활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갈 길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이나 다른 때에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나 마시게!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3b

옛날에 중국 스승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스승은 누군가가 그를 찾아오면 언제나 차를 마시자고 청했습니다. 누군가 오면 의례 그 스승은 “전에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그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차나 한 잔 합시다.”라고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승이 “전에 여기 오신 적이 있으신지요?”라고 묻자 그는 “예, 여러 번 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역시나 “좋아요. 차나 한 잔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 절의 주지가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십니까? 여기 온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시고 여기 온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차를 마시자고 하시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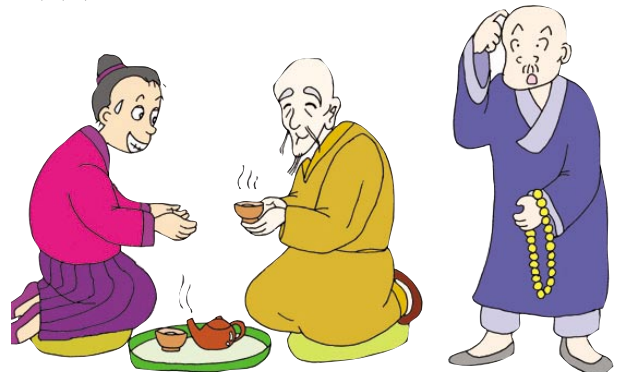
그러자 스승은 주지에게 말했어요. “주지, 차나 한 잔 하시게나.”

이 말은 들은 주지는 “스승님, 뭔가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대답했지요. “너야말로 문제가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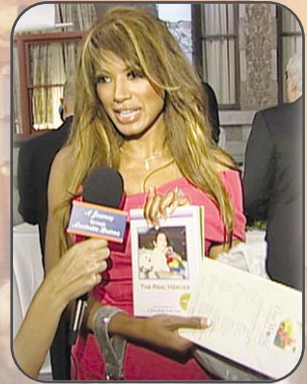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나도 때로는 여러분의 쓸데없는 질문들 때문에 쓸데없는 대답을 찾느라 고생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해 내거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해야만 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차나 마시게!”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궁금할 것이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니면 “차나 마시게!”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속뜻은 이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이며, 온 우주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머지않아 알게 될 테니까요. 🍵



동물 애호 스타들이 할리우드 PETA 25주년 기념 파티에 참석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음악가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 배우인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 킴 베이싱어(Kim Basinger) 같은 유명 인사들이 명예위원으로 있는 단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은 세계 최대의 동물 권리 보호 단체로서 동물 보호법과 채식주의 생활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ETA의 대표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그녀의 자비로운 본보기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칭하이 무상사를 PETA 25주년 경축 행사 및 인권상 시상식에 특별손님으로 초대했다. 비록 스승님이 직접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이 스승님을 대신해 이번 시상식에 참석했다.

2005년 9월 10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베이워치’의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 ‘글래디에이터’의 조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 ‘붉은 10월’의 알렉 볼드윈(Alec Baldwin), ‘트루 라이즈’의 제이미 리 커티스(Jamie Lee Curtis), ‘반지의 제왕’의 손 오스틴(Sean Astin), ‘Charmed’의 알리사 밀라노(Alyssa Milano), 오스카 그래미상 수상을 수상한 가수 프린스(Prince), NBA 스타인 데니스 로드맨(Dennis Rodman), ‘앤디 덕 쇼’의 앤디 덕(Andy Dick), 전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 그래미상 수상 가수 핑크(Pink) 등 할리우드에서 가장 자비로운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파티가 시작될 즈음, 『피플 매거진(People Magazine)』, 『엔터테인먼트 투나잇(Entertainment Tonight)』, 『액세스 할리우드(Access Hollywood)』 같은 유명 매체의 기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회원 또한 TV 프로그램

인 ‘예술과 영성’을 대표해 행사를 취재하고 있었다. 핑크에게 어떻게 이번 행사에 오게 되었는지 묻자 핑크는 “PETA를 지지하기 위해서지요! 칭하이 무상사님, 안녕하세요! ‘예술과 영성’도 반갑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많은 스타들도 행사 인터뷰에 응하면서 스승님께 안부를 전했다.

동수들은 이 기회를 빌어 일반 접견실과 VIP룸, 귀빈실에서 견본책자를 나눠주고, 채식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이 담긴 ‘진정한 영웅’ DVD를 상영해 대중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진정한 영웅’은 2005년 6월 26일, 미국 PAX TV로 방영된 일이 있다. 동수들은 이 밖에 수천 명의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채식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기도 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PETA의 회장이자 설립자인 잉그리드 뉴커크(Ingrid Newkirk)는 “이번 25주년 기념 경축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며 또한 동물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잔인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대신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인류가 황금시대로 접어들에 따라 스승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고양시키셨는지 정확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채식과 인도적인 생활 방식을 통해 더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이제 이들은 수백 만의 팬들에게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저명한 인사들은 스승님의 가르침과 무한한 사랑을 접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의 은총 속에 남은 인류도 이해심과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 ‘진정한 영웅’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스승님께 드린 할리우드 스타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사진:

▲앤디 덕

▲페르시아 화이트

▼알렉 볼드윈

▼파멜라 앤더슨



초청장

(원문 영어)

2005년 9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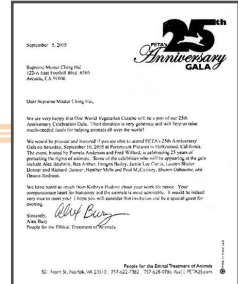
친애하는 칭하이 무상사께

‘하나의 세상 채식’ 요리 팀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 25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분들은 아낌없는 기부를 해주셨고 이는 전세계 동물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ETA의 25주년 경축 행사는 2005년 9월 10일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귀하께서 참석하실 수 있다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다. 파멜라 앤더슨과 프레드 윌러드(Fred Willard)가 진행할 이번 행사는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PETA의 25년을 경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사에는 알렉 볼드윈, 베아 아서(Bea Arthur), 이모겐 베일리(Imogen Bailey), 게이미 리 커티스, 로렌 쉐러 도너(Lauren Shuler Donner)와 리처드 도너(Richard Donner), 헤더 밀스(Heather Mills)와 폴 매카트니, 샤론 오스본(Sharon Osbourne), 데니스 로드맨 등 귀빈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귀 협회의 회원들로부터 평화를 위한 귀하의 노고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인류와 동물을 향한 귀하의 자비로운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귀하를 뵈게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초대를 받아 들여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돼 주시길 기대합니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알렉스 베리(Alex Bury) 드림



은막의 채식 영웅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진정한 영웅은 우리의 불우한 존재들, 즉 불우한 사람들과 동물 친구들 모두에게 사랑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다음 소개하는 두 명의 채식 슈퍼스타는 스크린과 일상생활에서 모두 영웅이라 할 수 있다.

평생 동물을 사랑하는 배트맨

히트작 ‘배트맨 비긴스(Batman Begins)’의 스타인 31세의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은 동물과 평생에 걸친 인연을 갖고 있다.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베일(David Bale, 1941-2003)은 유명한 동물 권리 보호 운동가였으며 그의 생활 원칙은 어려움에 처한 생명체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집 없는 고양이, 개, 새를 데려와 돌봐주었고 미혼모와 노숙자들도 도왔다. 크리스찬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많은 동물 보호소를 방문하고 동물 권리 회의에 참석했으며 지금까지도 동물 복지 조직의 주요 후원자를 맡고 있다. 그는 현재 구조된 떠돌이 고양이와 개, 주머니쥐들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살고 있다.

크리스찬은 9살이었을 때, 한 소녀가 도살되려는 꼬마 돼지 ‘월버’를 구하는 사랑스러운 이야기 ‘샬롯의 웹(Charlotte’s Web)’을 읽었다. 다른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월버의 승리에 환호한 다음 엄마가 저녁 밥상에 올려놓은 돼지갈비를 먹었던 것과는 달리 크리스찬은 그 책을 읽은 순간부터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몇몇 영화 때문에 극심한 육체적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자신의 고귀한 약속을 지켜왔다. 예를 들면, 영화 ‘머시니스트(The Machinist)’를 찍기 위해서는 체중을 180파운드에서 121파운드(82kg에서 55kg)로, 즉 체중의 30%를 줄여야만 했고, 이 영

화를 완성한 지 6주 만에 ‘배트맨 비긴스’의 오디션을 위해 59파운드(27kg)를 다시 찌워야 했다. 촬영이 5개월 후에 시작되었을 때 이 채식주의자 배트맨의 체중은 220파운드(100kg)였고 대부분이 단단한 근육이었다.



순진하면서도 성숙한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Tobey Maguire, 1975년 생)는 ‘스파이더맨’과 다른 영화에서 보인 뛰어난 연기 덕분에 그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토비의 첫 번째 영화를 찍은 리안 감독은 “그에게는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과 높은 영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의 연기에 대해 또 다른 감독은 “토비는 과장된 말을 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할 뿐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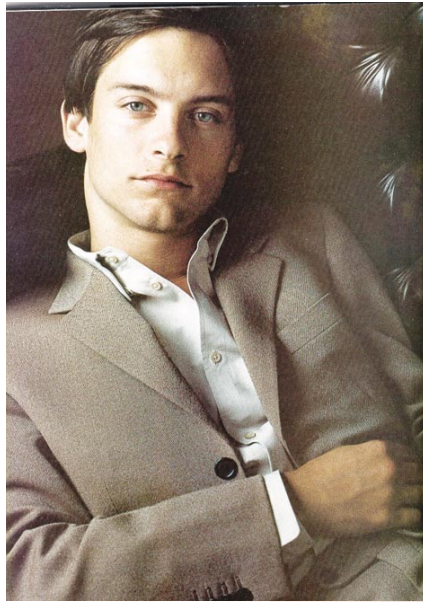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육식을 싫어했던 토비는 “나는 동물과 음식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한

다. 그는 마지막으로 먹었던 육식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햄이 든 치즈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전이 보였다. 치즈버거에 들어간 동물들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치즈버거를 먹을 수 없었다.” 이에 토비는 1992년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고귀한 맹세를 했다.

그 후 1994년에는 술과 담배도 끊었는데 이는 할리우드 나이트 클럽을 자주 찾던 19세의 영화 스타에게는 대단히 범상치 않은 결정이었다. 이 시기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결정해야만 했다.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하며 어울려 다니는 십대가 되든지, 아니면 연기에 집중하든지 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고기와 술을 끊었다고 해서 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토비는 수년 동안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근사한 식사에 쓴 것을 인정했으며, 특히 미식가로서 채식피자와 두부를 좋아했다. “나는 두부에 대해 특별히 따지는 편인데, 정성스레 만들기만 하면 아주 맛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멋진 식당에서 마주친 그의 팬들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알고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스파이더맨’ 오디션에 받기 전까지 토비는 사실 운동선수 같은 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기자들은 그를 ‘연약하다’거나 ‘밀가루반죽’으로 묘사했다. 실제로 ‘스파이더맨’의 제작자는 그의 연기 능력에 대해선 감동했지만 그의 몸이 주연인 스파이더맨에 적합하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토비는 개인 트레이너, 격투기 강사, 체조 코치, 스텐트맨 및 요가 강사 등이 포함된 팀을 조직해 전력을 다해 오디션을 준비했다.

영화 제작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근



육을 키울 수 없다고 여겼기에 그에게 채식 맹세를 깨뜨리도록 강요했다. 다행히 토비의 트레이너는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비에게 고단백 비타민 셰이크, 채식 버거, 및 두부로 된 이상적인 식단을 짜 주었다. 오디션 차례가 왔을 때, 토비는 수 차례의 격투 장면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친 다음 셔츠를 벗어 근육질 몸매를 드러냈다. 감독은 “그는 액션 영화의 중량급 스타였다.”라고 말했다.

그의 개성에 대해 토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사람들은 나를 순수하거나 순진한 인격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미 영혼의 평온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이 개봉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전 같으면 ‘나는 것’이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게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나는 내 육체적 자아를 초월해서, 같으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 머무는 영적 존재가 되고 싶다.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처럼 속박에서 벗어나 물질세계를 초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초능력일 것이다.” (뉴스잡지 142호, 〈영화 이야기〉 참고)

결론

수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자신의 전문 경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스타들의 경우는 이러한 시각과 어긋난다. 오히려 채식 때문에 크리스찬 베일과 토비 맥과이어는 육식을 했을 때보다 신체가 더 강건해지고 일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

■ 특별 인터뷰 ■

영화배우 린다 블레어, 채식과 자비를 논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영어)



영화배우 린다 블레어(Linda Blair)는 오스카상을 탄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14세의 나이로 리건 맥닐(Regan MacNeil)이라는 어린 소녀로 분발해 잊지 못할 연기를 선보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블레어는 수년 동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러브 상과 ‘피플스 초이스 상’(People’s Choice Award)을 수상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 마틴 씬(Martin Sheen), 안소니 홉킨스(Anthony Hopkins), 커크 더글러스(Kirk Douglas), 리처드 버튼(Richard Burton), 레슬리 닐슨(Leslie Nielson) 같은 존경받는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었다.

영화 사업에서의 수많은 성취와 더불어, 블레어는 동물 보호 운동가와 『채식주의자가 되자(Going Vegan)』라는 책의 저자로서도 유명하며 널리 존경받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들을 좋아하고 사랑했으며 동물 보호 운동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아낌없이 투자해 ‘Feed the Children’, ‘PETA’, ‘Human Society’, ‘Last Chance for Animals’와 같은 단체들과 힘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동물 친구들을 돕고 있다. 또한 자신의 영향력과 목소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린다 블레어 세계의 마음 재단(Linda Blair WorldHeart

Foundation)을 창설해 안락사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해서 입양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예술과 영성’ TV프로그램은 2005년 5월 6일, 린다 블레어와 인터뷰하는 기쁨을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질문: 어떻게 해서 채식주의자와 동물 보호 운동가가 되었습니까?

린다: 1988년에 살충제, 산성비, 그리고 가축 사육 방식에 관한 기사를 읽고부터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식을 한 다음부터 내 삶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일도 없어졌고요. 체중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내가 몇 살인지 안다면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면 음식에 관해서, 동물들에게 행해지는 잔학성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지요. 우리가 동물과 지구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가축 사육이 생태환경과 강바닥, 해양, 대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공장식 사육’이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게도 위험합니다.

물론 많은 어린이들도 비만과 당뇨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는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요. 만일 계속해서 대중들을 교육시키고 모범을 보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채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물론 나 또한 완전 채식을 합니다.

열아홉 살 때 과도한 스트레스와 질 나쁜 음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의사는 “만일 당신의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명상을 시작했지요. 이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질문: 당신은 집에서 동물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린다: 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안 맞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동물 보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처한 모든 어미들과 새끼들을 구해내야 했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린다 블레어 세계의 마음 재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직 일 년도 채 안 된 일이죠. 기본적으로 대중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용기있게 나서서 이야기할 것이란 걸 알거든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름 높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투견장에는 마약과 총,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전체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정화시키고 범죄를 줄이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와 얘기를 나눈 법 집행위원들도 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려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다섯 마리의 개를 구조했는데, 전 그분이 다섯 마리의 개를 얼마나 잘 돌보고 훈련시켰는가에 관해 듣고 놀랐습니다. 어떤 행사에서 스승님은 몇 마리의 개들을 옆에 앉혀 두셨는데 모두 아주 착하게 굴었어요. 그 구조된 개들은 모두 채식을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개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깨끗이 닦아주시죠. 그 개들은 정말 완벽하게 훈련됐어요. 스승님은 시간을 들여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린다: 그런 걸 개들은 알아요. 아이들에게나 동물들에게 시간을 쏟으면 나중에 그 10배 이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동물들은 놀라울 정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정을 베풁니다.

제 계부인 하워드 리먼(Howard Lyman)은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Mad Cowboy)』라는 책을 쓴 그는 4대째 내려오는 목축업자이자 농장주였는데 암에 걸리고 말았죠. 그는 많은 친구들이 심장 질환으로 죽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심장 질환, 암, 당뇨, 비만들을 없앨 수 있어요. 천연 음식들로 돌아가 채식을 하고 완전 채식을 하거나 생식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먼의 말은 진실이에요. 그는 “만일 내가 척수 종양에서 살아난다면 세상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했고 또 그렇게 했지요. 나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일지라도 말이에요. 난 많은 질병들이 음식과 물 때문에 생긴다고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신부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임신부의 몸과 아기에게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요.

질문: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채식을 하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은막의 유명 인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사들이 채식을 하는지 조사했을 때 조아퀸 피닉스도 채식주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질문: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를 구조하고 집으로 데

린다: 조아퀸은 완전채식을 하지요.

질문: 파멜라 앤더슨, 나탈리 포트먼(Natalie Portman), 그리고 당신도 말이죠. 당신을 인터뷰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린다: 제임스 크롬웰(James Cromwell)도요.

질문: 예, 맞아요! 당신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명성을 그런 위대한 일에 활용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생활 방식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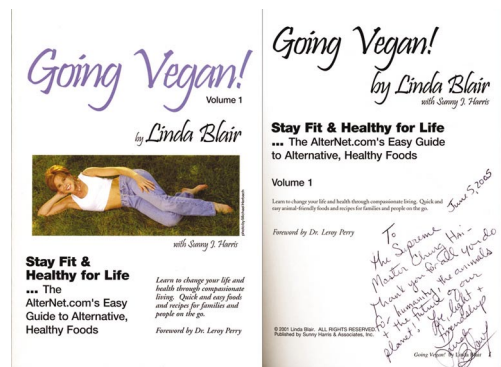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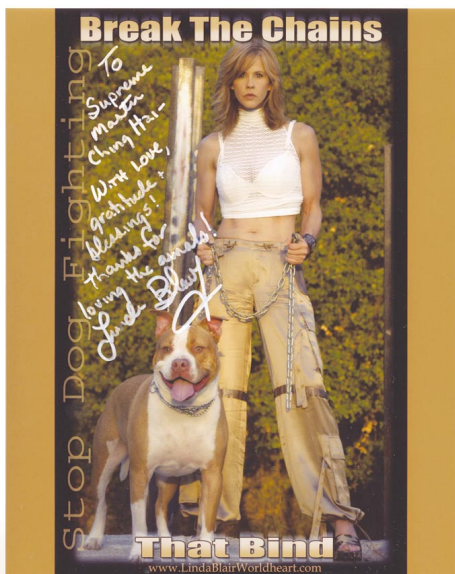
린다: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유명 인사란 신분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래요. 현재 완성된 일을 보면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충분치 않아요. 내 일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난 내 일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계획들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쏟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자비롭고 배려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합니다.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밝고, 즐길 수 있는 거 말입니다. 아마도 어떤 것은 기업체가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게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동참하세요!”라고 호소하고요. 그건 정말 힘들겠지만 나는 미국 국민들을 동참시킬 겁니다. 한 번에 한 지역씩 말이죠. 사람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1, 2년 안에 사람들은 갑자기 “와!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칭하이 무상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가 주는 영향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인도주의와 인간과 동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결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사랑, 기쁨, 단결, 평온, 포용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명상을 통해 그에 대한 해답을 삶 속에서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자비와 나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 영혼의 진정한 여정이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지혜와 사랑을 이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스승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무상사님, 당신을 알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근래에 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

◀ “칭하이 무상사께-사랑,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동물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린다 블레어의 친필 사인이 담긴 사진.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을 줄일 수 있는 열쇠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화석 연료, 신선한 물, 표토 등 천연자원의 감소는 유사 이래 인류가 겪어 온 그 어떤 일들보다도 더 큰 문제이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1997년 181개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 서명했다. 이러한 대책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영국의 물리학자 앨런 칼버드(Alan Calverd)는 2005년 7월에 발행된 과학 학술지 『물리학 세계(Physics World)』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육식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A Radical Approach to Kyoto)’이라는 그의 논문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과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칼버드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먹을 것을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느라 엄청난 천연 자원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석 연료 연소 및 인간과 가축의 신진대사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 그런 에너지의 21%가 가축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듯이 가축들의 호흡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칼버드가 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인간이 만들어 내는 배출가스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상학자와 정치인들은 가축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비인위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칼버드가 말한 21%라는 수치에는 사료 생산, 기계화된 도살, 내장 적출, 포장, 운송, 냉동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넬 대학의 농학자인 데이비드 피멘틀(David Pimentel) 박사는 육류 생산에 소모되는 에너지 비용을 보다 정확히 계산해 냈다. 그는 채식 운동과 연관이 없었지만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을 추적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 과학 논문 560편을 제출했고 책 23권을 저술했다. 육류 산업을 감독하는 여러 정부 직책을 맡았던 피멘틀 박사는 육식을 하는 동료 과학자들에게 “난 결코 도덕적인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료를 제공할 뿐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다.

그는 2004년에 발표한 ‘가축 사육과 에너지 사용’이라는 논문에서 미국에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401갤런이라는 경악할 만한 양의 가솔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반면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219갤런밖에 필요치 않다고 했다. 이러한 수치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피멘틀 박사는 또한 전세계가 미국인들처럼 먹는다면 지구의 석유는 정확히 13년 만에 전부 고갈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피멘틀 박사가 관찰한 내용 가운데 다음 내용들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이다.

‘미국식 표준 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걷는 데 소모되는 칼로리를 생각하면 차라리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편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는 일정 거리를 걷는 데 소모되는 음식 칼로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갤런 당 24마일

이상 주행하는 차로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소비되는 자원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웹사이트 <http://www.bicycleuniverse.info/>에도 이와 유사한 자료가 실려 있다. 즉 육식을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차를 운전할 때 소모되는 화석 연료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식과 관련이 있는데도 종종 간과되는 배기가스는 소가 숨을 내쉴 때 배출되는 혐기성 생물 소화로 발생하는 메탄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2005년 2월 『지구 물리 연구 통신(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논문에서 메탄이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며 메탄이 야기하는 지구 온난화는 이제까지의 추정치(10%)보다 두 배나 더 많다고 했다. 또한 육식으로 발생하는 메탄의 방출량은 모든 생물학적 메탄 방출량의 1/3을 차지한다고 했다.

깜짝 놀랄 만한 또 다른 통계 자료에선 미국에서 사육하는 가축 90억 마리가 소비하는 곡물이 전체 미국인이 먹는 곡물 양의 일곱 배나 된다고 밝혔다. 중국, 이집트,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축사육에 소비되는 곡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 ‘월드워치 연구소(Worldwatch Institute)’의 보고에 따르면 곡물을 먹여 1파운드의 스테이크를 생산

하기 위해선 35파운드의 토양이 침식되며 육식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4천 갤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채식주의자에게 300갤런만 필요할 뿐이라고 한다.

유명한 생태학자 마티스 워커네겔(Mathis Wackernagel)은 육류 위주의 식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생태 수용 능력을 소모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워커네겔, 칼버트와 같은 많은 과학자들은 이미 육식이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동물 복지와 동물의 대량 도살이 인간의 의식에 미칠 도덕적인 영향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관음법문 수행자로서 육식이 영적 진보와 깨달음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들을 살생하거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살생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하며, 전쟁이나 다른 형태의 비극을 가져온다. 과학자들이 육식이 우리 행성의 근간을 파괴한다는 어마어마한 실증 자료들을 밝히고 있으니 황금시대에 접어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육식을 그만두어야 할 많은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 🍌

런던의 ‘채식 생선 튀김과 감자 칩’

영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영국에서 채식이 유행한 지는 벌써 수백 년이 되었으며 채식협회도 1847년에 이미 설립되었다. 현재 영국에는 4백만 명이 넘는 채식주의자가 있으며 약 5천 명이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로 전향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조지 버나드 쇼, HG 웰즈, 비틀즈와 같은 유명한 정치가, 작가, 음악가,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채식을 추구해 왔다. 영국에는 현재

100여 곳이 넘는 채식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500여 곳의 채식 식당과 카페가 성업중이다.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이 건강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전에는 채식 전문점에서만 살 수 있었던 채식 햄버거, 채식 소시지, 파이, 타르트, 케이크에 달걀이 들어가지 않은 마요네즈까지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채식 식품 생산업체들이 식품의 성분과 영양에 관해 보

다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표시 기준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여러 지역의 폭 넓고 다양한 채식을 즐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영국에 있는 주목할 만한 채식식당인 ‘페킹 팰리스 (Peking Palace)’는 2001년 런던 센터의 어울락 동수 데이비드와 린이 개업한 곳이다. 그들의 목표는 대중들에게 고품격의 아시아 음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관음법문과 채식의 이로움을 알리는 것이었다.

런던의 다른 채식 식당과 구별되는 이 식당의 자랑거리는 유제품도 들어가지 않은 가장 다양한 채식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채식 갈비 바비큐, 태국 암꿩 수프, 몽고식 채식 양고기, 채식 왕새우 버터구이, 바삭바삭한 채식 소고기채 등은 그 가운데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식당의 손님 중에는 채식주의자가 아닌 손님들도 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모두 순수 채식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일부 손님은 식사를 해본 후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라면 자기들도 쉽게 채식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한다. 이곳을 찾는 채식주의자들은 음식의 독창성과 맛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이로 인해 페킹 팰리스는 다양한 연령, 계층, 문화, 국적을 가진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는 인기 있는 음식점이 되었다.

고객층이 이처럼 다양해지자 페킹 팰리스의 요리 팀은 언제나 새로운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요리 개발을 위해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지역 동수들이 새로운 요리를 시식해 주러 와주길 기다린다!

최근 페킹 팰리스가 내놓은 새로운 메뉴인 ‘채식 생선 튀김과 감자 칩(잘 튀긴 감자 칩을 곁들인 채식 생선 튀김)’은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도 식사를 했다는 유명한 ‘생선 튀김과 감자 칩’ 식당에 대해 쓴 스코틀랜드 신문 기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요리사들은 맛있는 튀김 반죽을 연구해 채식 생선을 시험한 끝에 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이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영국 전통 요리조차 맛있는 채식 요리로 대체할 수 있듯이 말이다. 🍷

다음은 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페킹 팰리스가 제공하는 요리법이다.

채식 생선 튀김과 감자 칩

채식 생선 튀김

튀김옷 재료:

발효 밀가루 3컵
옥수수가루 1컵
차가운 소다수 6컵
식용유 1 테이블스푼
심황 가루 조금

위 재료를 모두 섞어 튀김옷을 만든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채식 생선에 입힌다.

나머지 재료:

얇게 자른 채식 생선 2 조각
버섯 추출액 1 티스푼
소금 약간
밀가루 3컵

조리법

1. 채식 생선을 해동한다.
2. 소금과 버섯 추출물을 채식 생선에 살짝 뿌린다.
3. 생선에 밀가루를 얇게 입힌다.
4. 생선을 튀김옷에 살짝 담근다.
5. 금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튀긴다. (약 7-8분 정도)

감자 칩

재료: 중간 크기의 감자 3개

조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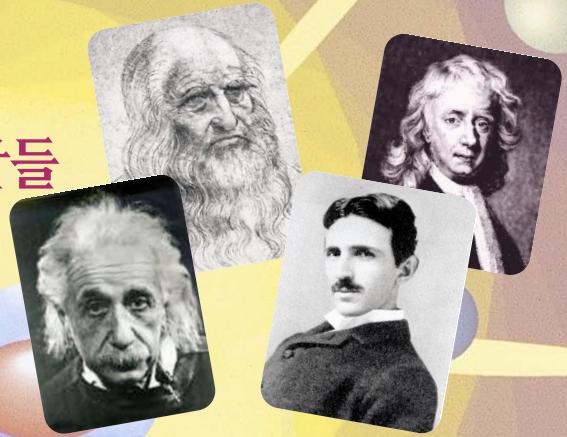
감자를 껍질째 두껍게 자른 후 금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다. (약 10-12분 정도)

맛있게 드세요!



채식주의를 지지한 저명한 과학자 및 발명가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지구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과학자들이 채식을 했으며 도덕적이며 논리적인 관점에서 채식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예를 들면,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과 물리학자를 겸하면서 수리학, 광학, 기계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가 채식주의자였다. 실제로 다빈치는 아주 열성적인 채식주의자로서 닭장에 갇힌 병아리를 사서 풀어주기도 했다. 최근 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간주되는 스리니바사 라마누잔(Srinivasa Ramanujan, 1887-1920) 또한 채식주의자였다.

위대한 발명가이자 물리학자, 공학자로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킨 교류 전력 시스템을 고안한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1856-1943)도 열렬한 채식주의자였다. 그는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Waldorf-Astoria Hotel)에서 특별히 주문한 호화 채식 음식을 주식으로 삼곤 했다. 채식의 물질적, 도덕적 이로운에 관하여 테슬라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보편적인 이치로 봤을 때, 음식을 얻기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확실히 바람직하다. 나는 채식이야말로 이미 정착된 야만적인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채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많은 민족이 채소만 주로 먹고 살았지만 여

전히 그들은 체격과 체력이 뛰어나다. 오트밀 같은 곡류가 고기보다 더 경제적이며 육체적, 정신적 효율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런 음식은 우리 소화 기관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며 우리를 보다 만족스럽고 상냥해지도록 해준다. 채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동물 학살을 멈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대를 앞서 나갔던 테슬라는 인류가 언젠가는 우주 에너지장에서 직접 에너지를 섭취해 생명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펴기도 했다. 이 밖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Edison, 1847-1931)도 채식을 했다. 그는 “채식은 건강과 육체적 활력뿐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미개인이다.”라고 썼다.

또 다른 저명한 채식주의자로는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며 평생에 걸쳐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이 있다. 그는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지구 생명체의 생존 기회를 높이기 위해 채식으로 바꾸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논조로,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과 아름다운 대자연을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비를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채식을 처음 시작하던 날, 아인슈타인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동물성 지방이나 고기, 생선이 없어도 매우 만족스럽다.

나는 늘 인류가 육식을 하지 않도록 태어난 것으로 여겼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 지난 100년 동안 세상에는 그에 비견할 만한 천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끈 이론* 학자이자 수학자로 알려진 동시대의 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튼(Edward Witten)은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 과학적 위업 외에도, 위튼은 채식주의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연구했던 같은 프린스턴 대학의 건물에서 동일한 물리학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인슈타인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위튼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브라이언 그린(Brian Greene)은 공간은 확장될 뿐 분열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반박했다. 아홉 살 때 이미 30자리 수 곱셈을 암산할 수 있었던 그 또한 채식주의자이다. 다음은 그가 과학, 윤리, 채식에 관해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질문: 왜 그렇게 많은 위대한 천재들이 채식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까?

브라이언: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채식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허용된 질서에 기꺼이 도전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자질들은 종종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질문: 그럼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 다른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브라이언: 저는 보다 일반적으로 범위를 넓혀 대다수 사람들이 왜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가라고 묻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오던 육식의

습관에 대해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동물과 환경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지요. 하지만 습관의 힘, 문화 규범,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감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느낌들은 근본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질문: 어떤 계기로 채식주의자가 되셨나요?

브라이언: 말 그대로 음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홉 살 때 어머니가 갈비 요리를 해주셨는데, 그 갈비는 그 고기를 만들어낸 동물을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여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았지요. 나중에는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되었고요. 뉴욕 북부에 있는 구제된 동물 농장을 방문해서 낙농업의 실상을 많이 알게 된 후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유제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에 모든 유제품을 끊게 되었지요.



현재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 과학자들조차 채식의 물리학적 이론 토대와 지구 생태 환경에 대한 채식의 공헌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앨런 칼버드(Alan Calverd)는 최근 “채식을 하는 것이 기름과 가스를 적게 쓰는 것보다 환경에 더 많은 이로움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지구 온난화와 채식 생활양식에 대해 대중들에게 호소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고급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도덕과 자비심, 지구의 안녕을 위해 채식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채식의 이로움을 확인해 왔다.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인류에 무한한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註): 끈 이론(String theory)은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1차원의 ‘끈’이며,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에서 기본 단위라고 여기는 무차원의 점(입자)이 아니라는 기초 물리학의 한 모델이다. 끈 이론은 ‘통일장 이론(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만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우주는 궁극적으로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히말라야에 부는 채식 바람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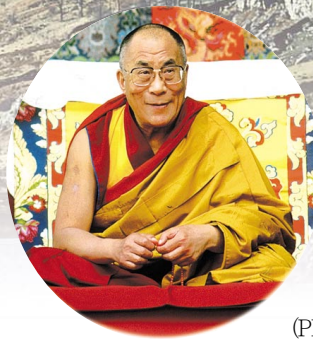
최근 영향력 있는 많은 티베트 인사들이 채식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식을 권하고 있다. 다음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달라이 라마

2005년 4월 5일,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지도자들 집회에 앞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요즘 나는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특히 티베트를 떠나 난민의 신분으로 사는 젊은이들은 스스로의 발전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이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하카루나(산스크리트어: 모든 중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 있는 모든 중생을 대하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 고귀한 결정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다. 특히 그가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채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매우 감탄할 일이다. 사실 그는 일찍부터 채식을 시작하고자 했으나 그의 주치의들이 지닌 이상한 믿음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티베트 의사들도 점점 채식의 이로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해외 티베트인 사회의 티베트 의약국 국장인 텐진 체팔(Tenzin Tsephal)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라이 라마께서 고기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처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방하는 의사들은 좀 구식이고 육식 이외의 음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티베트인들이 채식을 할 수 있으며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KFC는 티베트에 KFC 체인점을 열 계획



을 발표했다. 이에 달라이 라마는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제 친구인 ‘동물을 인

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PETA)’을 대표해 저는 KFC

가 티베트에 체인점을 내려는 계획을 철회하길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대량 도살을 조장하는 귀 회사는 티베트인들의 가치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KFC의 경영진은 이 계획을 무효화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달라이 라마는 많은 다른 채식 캠페인을 벌여 왔다. 한 예로, 그는 1993년에 그는 세계 최대의 티베트 망명 지구인 인도 다람살라(Dharamsala)에 있는 식당 주인들에게 티베트인들이 맛있는 채식을 먹고 육식을 그만둘 수 있도록 채식 식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식당이 채식 식당으로 전환했고 이런 식당들 덕분에 두부와 같은 채식 음식이 티베트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티베트의 또 다른 채식 선구자

또 다른 진정한 티베트 채식 영웅은 라마승 계세 툽텐 펠게(Geshe Thupten Phelgye)이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안거 수행을 마친 다음 1998년 우주 자비 운동 협회(Universal Compassion Movement, 공식 웹사이트: www.universalcompassion.org)를 창설했다. 이 단체는 채식과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주창하며 다람살라에서 채식 전단지들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99년 티베트 불교 승단을 대표하는 국제 겔룩 협회(International Gelug Society)의



수장으로 선출된 후 계세는 겔룩파 산하의 남녀 사원에 거주하는 모든 출가승은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다음 해 그는 주(駐) 다람살라 의회의 승려 대표로 선출되었다. 계세는 의회에서 2004년을 티베트인 채식의 해로 선포하고 한 해 동안 모든 티베트인들에게 채식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되 채식을 강요하는 대신 권장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티베트인들의 마음속에 채식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서기 200년 인도에 채식 문화를 확립한 '아소가 칙령' 이후 최고의 법으로 여겨질 것이다.

신세대 채식 옹호자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티베트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의 부청 K. 처링(Bhuchung K. Tsering)은 2004년 『티베트 타임스』의 사설을 통해 티베트인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새로운 채식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요즘 티베트 사회에서는 육식에 관한 논란이 대중들 사이에 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티베트인의 사교방식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비교적 젊은 티베트인들은 채식을 선택하고 있고 심지어 나이든 세대도 오래된 육식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하고 있다.”

채식 운동을 하고 있는 티베트 젊은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티베트 동물 보호 자원 봉사자 협회'의 설립자인 랍셀 차리와(Rapsel Tsariwa)이다. 그는 2005년 초, 두 친구의 도움과 달라이 라마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전 인도 채식 여행'이라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도를 횡단해 티베트 벽지까지 여행하며 채식에 대해 강연하고 채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이 여정 동안 많은 티베트인들과 서양 불교인들이 즉석에서 채식을 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가운데 700명은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차리와는 최초의 공식 채식 잡지인 『셈첸(Semchen)』을 영어와 티베트어로 발간했다. 최근 그에게 휴식을 권하자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동물들을 구해야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고무적인 티베트 청년은 텐진 쿵가 루딩(Tenzin Kunga Luding)인데, 그는 열 살 때 고기를 얻으려고 키우는 소들의 고통에 대해 들은 후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텐진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티베트 채식 사회(Tibetans for a Vegetarian Society, T4VS)'를 세우고 많은 시간을 들여 떠돌이 동물들을 구했다. 그는 텔리에 동물 구조와 재활센터를 위한 땅을 구입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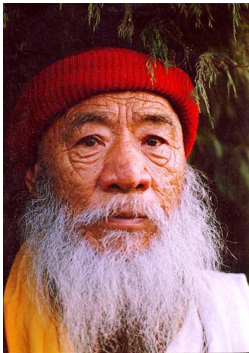
T4VS의 주 임무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채식을 알리는 것이다. 텐진은 팸플렛, 스티커, 포스터, 신문매체, VCD 등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최근 T4VS는 www.t4v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존경받는 고귀한 라마승들의 채식에 대한 토론을 담은 새로운 VCD를 제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텐진의 사비와 달라이 라마 개인 사무실에서 후원하는 소액의 기부금만으로 이루어진다. 달라이 라마의 기부에 대해 그는 “달라이 라마 존자는 최초의 티베트 채식 단체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이는 우리 티베트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티베트인 채식의 해를 맞아 T4VS는 최근 록 순회 공연을 개최했다. 텐진은 이 행사는 “육식을 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하고자

기획되었고, 채식을 하지 않아도, 불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해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그는 다른 단체와 함께 채식 생활 방식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맨발의 요기

93세의 요기 차트랄 린포체(Chatral Rinpoche)는 티베트의 가장 오래된 불교 종파인 닝마(Nyingma)파의 명상 스승으로, 거의 모든 삶을 동굴 속에서 홀로 지내거나 히말라야를 맨발로 누비고 다녔다. 차트랄 린포체는 채식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난 캄(Kham)과 암도(Amdo)를 비롯한 티베트의 모든 지역에서 육식을 하지 않는 많은 라마승들을 만났다.” 그는 채식주의를 알리기 위해 『육식을 논하



다』라는 책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나는 고기와 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술과 고기를 끊기로 맹세했고, 이 도덕 규범을 나의 모든 수도승들에게 공표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 도덕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많은 티베트 불교인들이 동물의 고기를 에너지로 바꿔 그것으로 그 동물들을 해탈시키고 더 나아가 높은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대해 차트랄 린포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정 명상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얻으면 동물의 살을 먹음으로써 죽은 동물을 소생시키고 그들이 더 높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깨달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동물을 도울 요량으로 하는 것이다. 나 개인은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업을 쌓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마치 내게 그런 힘이 있

어서 고기를 먹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피할 뿐이다.”

현대의 밀라레빠

밀라레빠의 카규(Kagyü) 법맥을 전승한 명상 스승 드룹왕 린포체(Drubwang Rinpoche)도 여러 해 동안의 안거를 마친 다음 지금은 사람들에게 완전 채식주의를 할 것과 성스러운 이름을 명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라마승 드룹왕이 주최한 한 선 행사에서 70명이 채식주의를 하기로 맹세했으며, 그가 라다크(Ladakh)의 여러 마을을 방문한 다음에는 그곳의 많은 주민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시장을 열지 않기로 약속했다. 드룹왕은 채식주의를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단호하게 마음먹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악업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채식주의를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중생이 과거 어느 때에 우리의 부모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결론

앞서 말했던 고귀한 티베트 채식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인류의 의식이 실제로 고양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고귀한 인사들은 티베트의 천년 전통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면서 채식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티베트 불교와 채식주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habkar.org 또는 www.veggiedharma.org



야마고시 마을의 마리와 세 마리 강아지

일본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지진이 일어난 날 태어난 세 마리의 강아지

운명의 날인 2004년 10월 23일 아침, 일본 니카타 현 야마고시 마을에서 마리라는 어미 개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그날 저녁 니카타 현에 강진이 발생해 야마고시 마을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마리가 살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로 태어난 강아지들은 지진의 충격으로 어미 품에서 튕겨 나갔지만 눈도 아직 못 뜬 상태라서 다시 어미 곁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마리 또한 줄에 묶여 있어서 새끼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다. 마리는 줄을 풀려고 계속 당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몇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그러자 마리는 더 세계 줄을 당겼고 목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여진이 발생하자 마리는 사력을 다했고, 결국 목줄이 느슨해졌다. 마리는 재빨리 새끼들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쉬지도 않고 무너진 주인집으로 달려갔다.

용감하게 할아버지를 구하다

지진이 일어나던 날, 마리의 집주인 가운데 할아버지만 혼자 집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2층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신경통이 있는 데다 부축해 주는 사람도 없어 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진이 발생한 후 할아버지는 옷장에 깔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여진과 정전으로 인한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는 이제는 꿈쩍없이 죽는구나 하는 절망

적인 생각에 빠졌다. 그때 마리가 그 방에 나타났다. 마리는 용기를 내라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의식을 잃어가던 할아버지는 마리를 보고선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마리는 할아버지를 훔아주면서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는 새끼들을 살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할아버지 방으로 재빨리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바닥에 깔린 날카로운 유리wa 도자기 조각들로 발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마리는 오르락내리락하기를 수 차례 계속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상처가 생겨났다. 그런 마리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다시금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살아야 해. 포기할 수 없어.' 마침내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옷장을 밀쳐내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마리에게서 용기를 얻은 할아버지는 전이라면 혼자서는 내려올 수 없었던 계단을 2시간에 걸쳐 내려왔다.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그는 새끼 강아지 세 마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있는 것을 보고 행복했다.

슬픈 이별과 더 큰 시련

2004년 10월 23일 일어난 지진으로 야마고시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모든 지방도로가 끊어져 완전히 고립되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자 10월 25일 모든 마을 주민들은 헬리콥터로 인근 대피소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는 마리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사료를 사랑하는 마리에게 남겨두고 그녀와 새끼들이 무사하길 기

도하며 개줄을 풀어주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준 마리를 뒤로 하고 헬리콥터에 오르며 죄책감과 슬픈 마음으로 “마리아,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슴이 에이는 듯했고 마리 또한 구슬프게 울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진 마리는 인적 없는 마을에서 음식을 찾아다녀야 했고 새끼들을 보호하느라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 동안 할아버지는 마리에 대한 근심걱정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대피한 지 2주가 지나자 야마고시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 집을 살펴보는 게 허용되었다. 할아버지의 아들도 마을로 돌아와서 즉시 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마리를 발견했을 때 마리는 매우 말라 있었다. 마리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그에게 달려왔고, 그는 마리를 오랫동안 꼭 안아 주었다. 마리 자신은 먹이를 충분히 먹지 못하면서도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며 온 힘을 다해 새끼들을 돌봤는지, 바짝 마른 마리에 비해 강아지들은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현관 입구에서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마을이 재건되기 전까지 야마고시 주민들은 인근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임시로 머물렀다. 마을 자치회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아들은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마리와 새끼들을 다른 집에 맡겨 보살피도록 해야 했다. 마리를 대신 돌봐주던 사람은 마리를 입원 중인 할아버지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마리와 할아버지는 마침내 다시 재회하게 되었다. 마리는 할아버지를 보고 아주 좋아했다. 회복 중이던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입술로 “내 생명을 구해 줘서 고맙구나.”라고 말했다.

2005년 4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해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마리를 데리고 살고 있으며, 마리의 세 마리 강아지는 다른 집에 입양되어 각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현재 할아버지와 가족은 아직도 임시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 속히 야마고시 마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마리를 위한 불꽃놀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와 사랑을 보여 주는 마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신문 매체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야마고시 마을의 마리와 세 마리 강아지』라는 그림책으로도 각색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재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책을 발행한 출판사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2004년 10월 지진 피해 지역의 재건과 구호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야마고시 마을과 인근 13개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주고 있다.

2005년 8월 2일, 야마고시 마을 사람들은 피난처로 머물고 있는 도시에서 해마다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꽃놀이 축제를 했다. 올해 행사의 제목은 ‘마리를 위한 불꽃놀이’였다. 축제에 참석한 야마고시 주민

들은 그들의 마을이 가능한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했다. 불꽃의 눈부신 광채와 연기 속에서 마리의 빛나는 미소가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불꽃놀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다. 🐾





신의 뜻에 순종하면 자유롭다

빈센트 응우옌 사형/ 미국 버지니아 (원문 영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의 3개 주를 강타한 후 나는 메릴랜드 센터에서 온 두 사자와 함께 2005년 9월 1일 피해 지역인 미시시피 걸프포트와 빌럭시에서의 구호 활동을 위해 출발했다.

가는 도중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미시시피 걸프포트로 가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로 가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뉴올리언스의 약속 장소에 다다르자 다시 걸프포트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자 한 사자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왜 장소가 계속 바뀌는 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나는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걸프포트에 도착해 보니 다른 구호 팀은 아무도 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호텔 방을 하나 빌려서 임시 본부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전이 된 관계로 그 지역의 모든 여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시시피 주의 헤티스버그(Hattiesburg)시를 지나 북쪽으로 145km 이상을 이동해야만 했다. 우리는 수많은 모텔과 호텔을 뒤진 끝에 겨우 전기가 들어오는 호텔을 찾아냈다. 모두들 24시간 동안 1609km 이상 운전하고 왔으니 이제 샤워를 하고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 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 갑자기 다시 걸프포트의 한 집으로 오라는 지시가 전해졌다.

그 사저는 다시 우리가 왜 왔다갔다해야 하나

며 일처리가 엉망이라는 듯 물었다. 그래서 나는 사저에게 “우리는 ‘병사’ 일 뿐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선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의 결정도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지시를 따르는 게 상책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었다. 이때 나의 내면은 마치 스승님이 모든 것을 안배하셨으니 우린 그저 ‘결정자의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길래도 하듯 평화롭고 고요했다.

이어진 구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구호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방식에 대해 일부 동수들 간에 이견이 생겼다. 차 안에는 15명이 있었는데 의견은 최소한 대여섯 가지나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시후에서 받은 훈련에 따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룹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마다 자기 의견대로 한다면 혼란만 클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모두들 ‘병사’가 되어 유일한 ‘장군’인 구호 팀장의 의견을 따르는 데 동의했다. 그때부터 구호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두들 물자에 대한 논쟁을 멈추고 이재민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자 단 하루 만에 U-Haul 트럭에 실은 모든 구호품을 나누어주고 빌럭시에 있는 300여 가정에 스승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다.

시후에서 훈련을 받던 때를 돌이켜보면, 나는 장

주들과 일하러 나갈 때마다 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를 찾으려 했던 게 떠오른다. 나는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회사를 경영해 왔으며, ‘내’가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일처리 방법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설세없이 지시하는 습관에 젖은 두뇌는 불필요한 논쟁과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런 나의 고집스러운 두뇌 때문에 나는 종종 야단을 맞았고 침착성을 잃고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데 100%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훈련과 스승님의 비디오투를 통한 가르침 덕분에 나는 작은 일에 일일이 의문을 가질 필요 없이 지시 사항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카트리나 구호 활동을 하면서 나는 평화로움과 ‘지시 사항을 따르면서 얻는 자유’를 느끼게 되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스승님이 안내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책임자를 통해 전달되는 스승님의 계획을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일들이 완벽해질 것이다! 요 몇 년 동안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느끼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건 다른 동수들도 비슷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번 구호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빌려서 사람들에게 신의 자비를 전달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작은 선물로 깊은 사랑을 표현하다

럭키 세인트 / 미국 버지니아 (원문 영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미시시피를 강타한 다음 2005년 8월 31일,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그리고 다른 주의 많은 동수들은 서둘러 구호팀을 조직해 허리케인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미시시피 연안 일대의 마을들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다. 모든 집이 물에 잠긴 미시시피 빌려시로 가는 길에 우리는 아주 겸손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그를 대신해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이번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입고 지낼 셔츠와 바지, 속옷 같은 옷가지 몇 벌이라고 알려 주었다. 우리는 음식, 식수, 손전등, 모기약 같은 다른 물건들은 가져왔지만 옷은 없었다. 홍수로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아 옷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호 팀의 한 동수가 “이 사람이 옷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옷이 필요한 걸 거예요.”라고 하더니 입고 있던 천의(天衣) 셔츠를 벗어 주었다. 다른 한 사형은 구호 활동을 마치고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옷을 가져오긴 했지만 여러 날 동안 구호 활동을 하느라 옷이 다 더러워진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입고

있던 깨끗한 셔츠를 벗어 차에 있던 비교적 깨끗한 바지 몇 벌과 함께 그에게 주었다. 사형들의 이런 자비롭고 자발적인 행동에 그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 옆에서 있던 두 명의 이웃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구호품을 주며 그들의 축복을 빌어 주었다. 이에 그들은 스승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에 크게 감사했다. 🙏



SM 셔츠를 입고 스승님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한 허리케인 이재민. 그는 선물 꾸러미와 동수들이 준 옷을 받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하고 지나간 미시시피의 빌려시 지역에서 구호 작업을 하던 지

독히도 후텁지근한 어느 날, 나와 동수들이 탄 차가 집 밖에 비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한 노인을 지나



치게 되었다. 우리는 즉시 차를 세우고 그 노인과 근처 다른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주었다.

구호품을 나눠주는 동안 노인의 젊은 룸메이트가 아찔했던 순간에 대해 들려 주었다. 허리케인이 강타할 당시 노인은 다른 곳으로 대피했지만 청년은 자기가 폭풍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집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 집은 무너졌고 그는 유일한 출구였던 창문을 부수고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집에서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물은 이미 그의 머리까지 차 올랐고 그는 헤엄을 쳐서 다른 집 2층에 도착해 창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그 집 주인이 창문을 열어 주었다.

물이 빠른 속도로 차 오르자 걱정이 된 청년이 “물이 2층까지 차면 어떻게 하죠?”라고 주인에게 묻자 주인은 차분하게 “지붕으로 올라가야죠.”라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만일 지붕 위까지 물이 차면 어쩌냐고 묻자 주인은 역시 차분하게 “집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대꾸했다. 아무튼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는 밤 10경이면 물이 빠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젊은이는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벌써 밤 9시가 됐는데도 물이 아직 불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다행히 10시가 되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청년은 물에 떠다니던 병에 든 생수와 통조림 음식만 먹으며 연명해야 했다.

이어서 노인도 한 가지 얘기를 들려 주었다. 최악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인의 집 옆에 벽과 지붕은 멀쩡한데 기초만 없어진 또 다른 집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집 안은 뒤죽박죽인 데다 물건들이 소금물에 젖어 있긴 했지만 가구도 있었다. 놀랍게도 그 집은 본래 이웃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와 울타리를 넘어 그의 집 옆에 나란히 자리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생존담을 들은 뒤 우리는 그들에게 구호물품과 가스 전등, 약간의 구호금을 주었다. 선물을 받은 노인은 스승님의 호의에 감사해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이런 감동적인 장면에 나 역시 울음이 나왔다.



급류에 휩쓸려 무너진 노인 집 옆으로 옮겨온 집(왼쪽 흰집).

가게와 주유소도 모두 문을 닫고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고 온통 무너진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를 며칠 동안 운전하고 다니다가 마침내 몇몇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신호등이 작동하고 사람들이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신호에 걸리고 교통체증으로 차가 막혀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다. 🙏

미국

관음 가족이 허리케인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다

2005년 8월 29일 월요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시속 225킬로미터의 강풍과 9미터의 해일을 동반한 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주를 강타했다. 이들 주(州) 해안에 위치한 많은 집들이 강한 바람으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이번 폭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홍수였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주요 제방이 홍수로 무너져 내렸고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다.

스승님의 선견지명이 큰 도움이 되다

1996년 스승님은 전세계 센터 동수들에게 재난 구호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무전 장비와 긴급 구조 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셨다. 다행히도 미국의 많은 센터들이 스승님의 숭고한 지시를 따랐고 이런 그들의 노력은 이번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활동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일례로 구호 팀이 이동전화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동수들은 무전기에 의지해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허리케인이 닥치기 이틀 전, 8월 27일 스승님께서 '앞으로는 항상' 모든 재난에 대해 빠짐없이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라고 전세계 센터에 자비로운 지시를 내리셨다는 것이다.

관음 가족, 신속하게 구호 팀을 결성하다

TV를 통해 카트리나 피해 상황을 보게 된 플로리다와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즉시 합동 구호 팀을 조직했고 허리케인이 미시시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자 선발대가 플로리다에서 급파되었다. 선발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플로리다 센터로부터 태풍의 경로에 있는 미시시피 걸프포트(Gulfport)에 한 사형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허리케인은 시속 250킬로미터 이상의 강풍이 부는 5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사형의 전화는 이미 불통 상태였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주소를 역추적한 끝에 선발대는 그 지역에 들어가기 직전 그의 주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스승님의 절묘한 안내로 선발대



걸프포트 구호 팀의 본부였던 한 동수의 집 앞에서 동수들이 나눠줄 구호물품들을 정리해 싣고 있다.



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당시 그 일대에는 다른 어떤 구조 기관도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의 동수 세 명이 8월 31일 수요일 밤에 빵과 샌드위치, 땅콩버터, 식수, 손전등, 기저귀, 물티슈, 여성용품과 기타 물품들을 미니밴에 싣고 루이지애나로 급하게 향했다.

는 그 사형이 대피하기 바로 직전 그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의 집은 다행히 태풍의 이동 경로 바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사형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을 임시 구호 본부로 제공했고 구호팀을 걸프포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안내해 구호품

서로 협력해 최첨단 구호 활동을 펼치다

첫 번째 구호 팀이 이미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오리건, 버지니아, 텍사스, 메릴랜드, 오하이오, 인디애나 센터 동수들도 즉시 구호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 활동에는 14개 주 총 100명이 넘는 동수들이 참여했다.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있었던 제1조 구호 팀의 동수들은 서로 통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총 여섯 대의 이동전화만 있었지만 거의 신호가 터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허리케인이 강타하기 바로 직전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완성했던 한 사형이 이를 바로 재난 구호 웹사이트로 전환해 각 구호 팀의 최신 정보를 올려놓을 수 있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이동 경로(노란색 점선)와 여러 다른 주의 구호 팀들이 재난 지역으로 이동한 경로(갈색 화살표).

구호 팀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새롭게 올라오는 정부의 대피소 목록과 폭풍의 인공위성 이미지 등 피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매우 유용했다. 아주 유용했던 또 다른 첨단 과학기술은 위성항법장치(GPS-지구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는 인공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였다. 걸프포트와 빌럭시(Biloxi) 지역에 있던 많은 도로 표지판이 강풍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대원들은 초간편 GPS 수신기를 이동전화에 연결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에 돌아와야 할 지역들을 GPS 지도에 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활동은 미국 동수들의 역대 구호 활동 가운데 최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구호 활동이 되었다.

스승님의 정확한 안내

허리케인이 몰아친 지 사흘째 되던 8월 31일, 뉴올리언스 전체가 거의 다 물에 잠겼으며 약 10만 명이 역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세계에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구호 팀이 바로 결성돼 배턴루지(Baton Rouge)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뉴올리언스로 통하는 모든 고속도로가 경찰에 의해 차단됨에 따라 구호 팀은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동수들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도를 연구하며 진입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동수들은 속으로 스승님께 기도하면서 경찰들에게 재해 지역에 들어가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던 중 스승님의 안내로 한 사저가 미리 예약돼 있던 암 화학 치료도 받지 않고 자신의 적십자 회원 배지를 가지고 오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호 팀은 마침내 뉴올리언스에 들어가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 들어 보니 그 사저는 재난 구호 과정을 이수하라는 스승님의 1996년 제안에 따라 CPR(심폐소생술)과 응급 구조 과정을 공부한 뒤 적십자사의 수료증과 배지를 받았다고 한다. 스승님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그녀는 배지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뉴올리언스에서의 이 역사적인 구호 활동도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구호 팀이 뉴올리언스 진입에 성공하자 전체 구호 활동의 중심도 미시시피에서 재해 지역 중심부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구호 팀은 배턴루지에 있는 한 호텔에 새로운 본부를 세우고 뉴올리언스 슈퍼돔(Superdome) 외부에 있는 임시 대피소에 수용된 3천여 명의 이재민들에게 식수와 얼음, 음식, 긴급물자들을 나눠주었다.



동수들은 슈퍼돔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빠져나온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에게 식수와 물품을 가져다 주었다.



뉴올리언스에서 동수들이 월마트의 주차장에 구호 물품 꾸러미를 아적하고 있다.

9월 2일 금요일, 오리건, 로스앤젤레스, 캔터키에서 많은 동수들이 구호 팀에 합류해 왔다. 동수들은 뉴올리언스 월마트로부터 주차장 사용 허가를 받은 후 1,400개의 물품 꾸러미와 많은 식수 상자를 쌓았다.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었기 때문에 동수들은 얼음과 1,100명 분의 아이스크림도 구입해 재난 지역에 나눠주었다.

이재민들을 돕는 동안 TV 기자가 동수들과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중 한 구조대원의 활동 사진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뉴스 잡지인 『US News & World Report』 9월 12일자에 게재되기도 했다.

슈퍼돔 긴급 구조 요청

슈퍼돔의 상황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군대와 경찰, 매체 관련 인원들이 있었지만 이재민들은 충분한 음식과 식수가 없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9월 1일 오후, 뉴올리언스 시장은 CNN을 통해 슈퍼돔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구조 요청’ 성명을 냈다. 당시 우리 구호 팀은 사실 슈퍼돔 지역에서 이재민들에게 기본 물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단체였다.

다음 날 정부 기관들과 구세군, 다른 단체들이 슈퍼돔으로 트럭에 식품과 식수를 싣고 들어옴에 따라 구호 팀은 구호 본부를 다시 걸프포트로 옮겼다. 걸프포트에는 대피할 수 없었던 수천 명의 빈민들이 전기, 음식, 식수, 휘발유도 없이 남아 있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구호 팀은 전기와 수도 같은 기본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걸프포트에 머물면서 빌럭시와 걸프포트, 패스크리스천(Pass Christian), 베이세인트루이스(Bay St. Louis), 웨이브랜드(Waveland)의 3,900 가구에 음식과 생필품, 식수 37,460병을 나눠주었다.

미시시피 지역에 군부대, 적십자사, 구세군이 도착한 다음, 많은 구호품 배분소가 설치되고 몇 개 지역에는 전기도 다시 공급되면서 구호 팀은 2005년 9월 8일 걸프포트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구호 팀이 미시시피의 걸프포트의 빈민가를 방문하자 이재민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한 자원봉사자가 뉴올리언스 외곽 마타리에 있는 10번 고속도로 부근에서 생수를 나눠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이재민들이 감사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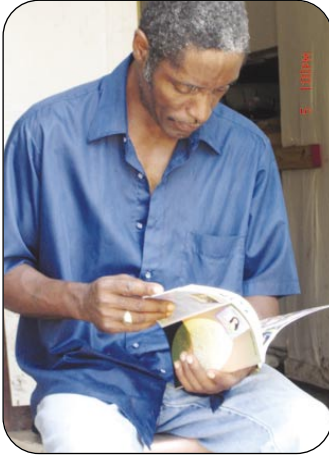
환영 팀이 생존자들을 위로하다

한편 뉴올리언스의 이재민들은 버스로 가까운 텍사스로 이송되었다. 이에 달라스와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환영 팀을 구성해 오갈 데 없이 심신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스승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 주었다.

달라스의 환영 팀은 리유니온 아레나(Reunion Arena)와 컨벤션센터에 모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해 주었는데 이재민들이 가장 반긴 것

은 새 양말과 속옷이었다. 팀원들은 또 적십자사를 도와 요리와 의료 활동 그리고 서류 업무를 했다.

휴스턴 지역 이재민 수용소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휴스턴 적십자사 에르셀 앨버트(Ercel Albert) 국장은 우리 협회 환영 팀이 루이지애나 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 스승에 그 제자니까요.” 한 이재민이 뉴스잡지를 보고 한 말.

재민들의 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많은 시설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동수들이 가져온 선물 꾸러미들을 보고 나서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대피 시설을 찾기 위해 도착하고 있는 적십자사 본부에 우리들이 준비한 수백 개의 물품 꾸러

미들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적십자사는 보통 음식물 기부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요구는 유래 없는 일이었다.

9월 2일 금요일, 동수들은 신속하게 물품을 구입해 식수와 영양과자, 개인 생필품이 든 6천 개의 꾸러미들을 포장했다. 다음 날, 여러 주에서 동수들이 휴스턴 센터에 도착해 지역 대피소와 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수천 개의 꾸러미를 나눠주었다.

이어서 9월 4일 일요일에는 30명이 넘는 동수들이 아스트로돔 바깥에서 이재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었다. 많은 이재민들이 자신들을 돕는 우리 동수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밖에 그 부근의 보안을 맡은 경찰은 우리 협회 회원들이 비개방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제야 구호팀은 아스트로돔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이재민들에게 구호품과 식수를 직접 나눠줄 수 있었는데,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 거대한 건물 안에는 줄줄이 놓인 야전 침대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엄마들이 그 위에 앉아 어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또한 휠체어를 탄 노인들과 침대를 떠날 수 없는 병자들도 보였다.



한 사형이 부모와 연락이 끊긴 한 아이를 위로하며 음식을 건네고 있다.



휴스턴 부보안관인 데니스 머피(Dennis Murphy)와 사자들.



텍사스 휴스턴의 아스트로돔에 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들.

그들 모두 스승님의 작은 사진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받자 표정이 매우 밝아졌

다. 어떤 이들은 동수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가볍게 담소도 나누며 동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휴스턴 구호 활동 외에 펜실베이니아 센터 동수들은 엘파소에 있는 구세군 본부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전해질 기저귀와 유아 식품, 이유식, 종이, 펜, 속옷, 과자, 수건 등을 기부했다. 구세군 책임자와 직원들은 동수들의 지원에 대단히 기뻐하며 카트리나 이재민 대부분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라서 기저귀와 이유식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정말 잘됐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 센터 동수들이 구호품을 구세군 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다음은 허리케인 생존자들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받으면서 구호 팀원들에게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일부분이다.

브랜다 할머니는 홍수 때문에 살고 있던 지역의 수위가 자기 키만큼 높아지자 지붕 밑 다락방으로 대피해 구조될 때까지 2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남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강하게 느꼈는지 계속해서 “여러 형제자매들을 이곳에 보내 이런 고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 세 살, 네 살, 아홉 살의 자녀에 열여섯살 조카까지 데리고 있던 한 젊은 부부는 한밤중에 갑작스레 밀려들어온 홍수 때문에 서둘러 집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부부는 아이들을 업고 범람하는 물을 건너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다리로 피신한 다음 아무 몸을 따뜻하게 말려 줄 담요도 없이 다리 한 구석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동수들이 그 가족에게 선물 꾸러미를 주자 그 가족은 모두 이렇게 힘들 때 마음과 영혼에 위안이 되는 소중한 물품들을 보내 주신 스승님께 계속해서 감사한다고 했다. 그들의 세 살배기 딸 리사는 한 사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꼭 껴안고는 헤어지려 하지 않았다.

주는 사람이 받는 이보다 행복하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활동이 끝나자 구호 대원들은 고양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보호하고 돌보시는 스승님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동수들 내면에 존재했던 스승님의 사랑 때문에 동수들은 이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온갖 장애와 피로, 오염된 환경을 극복해 많은 이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당신께서 모범이 되어 좋은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구호품을 양손 가득 받아든 이재민이 “감사합니다. 청하이 무상사님.”이라고 말한다.

돕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엔 ‘당신’, 스승님이 계시니까 말이다. 🙏

신의 사랑이 지구에 화현하다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159편과 161편은 미국 14개 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활동 내용과 더불어 스승님의 강연을 방송했다.

인터넷 시청: <http://Godsdirectcontact.org.tw/eng/hiche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REUTERS  **AlertNet**
FOUNDATION

Ronnie Nguyen distributes water to Hurricane Katrina victims in Biloxi, Mississippi
03 Sep 2005
Source: Reuters



Ronnie Nguyen of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religious organization hands water to residents of Biloxi, Mississippi September 3, 2005. Hurricane Katrina caused severe damage to the area. The U.S. military will send home from Iraq and Afghanistan more than 300 Air Force airmen based at an installation in Mississippi battered by Hurricane Katrina to allow them to assist their families, officials said on Saturday.
REUTERS/JOE SKIPPER

로이터 AlertNet 2005년 9월 3일 토요일
(원문 영어)

로니 응우옌이 미시시피 빌럭시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수재민들에게 물을 나눠준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로니 응우옌 씨가 2005년 9월 3일,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시시피 빌럭시 주민들에게 물을 건네고 있다. 미 공군은 이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300명이 넘는 공군 사병을 카트리나 피해 지역인 미시시피 기지로 보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조 스키퍼)

미국 뉴욕

갈망하는 영혼들이 심신의 양식을 얻다

뉴욕 뉴스그룹 (원문 영어, 중국어)

노숙자에 대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5년 2월 기준으로 36,166명의 노숙자들이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14,884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나마 거리 노숙자의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노숙자 쉼터가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노숙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고작이다. 이 불행한 형제자매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엄성, 영적인 위안도 필요하다.

이에 2005년 9월 3일, 뉴욕 동수들은 ‘피터의 집(Peter’s Place)’을 방문해 노숙자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채식을 제공했다. 이 쉼터는 주로 55세에서 85세까지의 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동수들이 가능한 한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쉼터를 찾아가 주간 메뉴를 점검해 보았다. 그런데 노숙자들 상당수가 당뇨나 고혈압,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앓고 있었지만 과일과 신선한 채소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주방 팀은 식물성 기름을 적게 쓰는 대신 보기도 좋고 맛과 영양까지 뛰어난 특별 식단을 준비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노숙자들은 채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쉼터의 주방장은 채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는 동수들과 채식 요리법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승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동수들은 식사 시간에 스승님의 비디오도 상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여러분 스승님이예요? 너무도 아름다우시군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여기 오시나요?”라고 물었다.

또 그 곳에 머물고 있는 한 여성은 “TV 화면에서 스승님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이 무슬림이며 이전에는 채식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녀는 다시 채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다른 노숙자는 전단지를 읽고서 스승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앞에 차려진 점심

도 거의 잊어버렸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쉼터 노숙자들은 “이런 진수성찬은 처음 먹어봐요. 먹고 나서도 속이 아주 편하네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동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동시에 스승님께도 감사함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실 이번 활동으로 가장 큰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은 동수들이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에게 봉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그리고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수들은 ‘피터의 집’에서 식사를 제공한 이번 활동으로 불우한 친구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져다주고 그들이 사회에서 잊혀진 것이 아니며 신의 눈에는 다른 모든 이들처럼 특별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쉼터의 주방장은 “전에 좋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내가 이곳에 와서 봉사하게 되었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멋진 영적인 표현이 아닌가!



대한민국

장애아동과의 즐거운 저녁식사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센터에서 운영하는 SM 뷔페의 요리사들과 서울 동수들은 2005년 7월 19일 서울의 다니엘 복지관에 있는 200명의 정신 지체 및 신체 부자유 학생에게 멋진 채식 뷔페를 대접했다. 이날은 마침 특수학교가 방학하는 날이어서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방학선물이 되었다.

이번 활동은 지난 연말 채식 뷔페에 식사하러 왔던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정희선 소장이 복지관을 소개해 주었고, 복지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채식 뷔페를 운영하는 동수들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복지관에는 4세에서 35세까지의 남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도 많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집에서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인들도 있었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거나 어려운 집안 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100명 정도는 기숙사 시설에 머물고 있었다.

동수들이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입구에서부터 친절한 미소와 반가운 몸짓으로 우리를 반겼고 함박웃음과 함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장애아동들이 직접 음식을 담기 힘들었기 때문에 동수들이 모든 음식을 아이들의 식판에 골고루 담아 주었다.

그리고 좀더 나이가 많은 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의 식사를 대신 준비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어눌한 자세로 자신의 식판과 나이 어린 동생의 식판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힘겹게 선 소년들의 모습에서 티 없이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한 한 장애아동에게 밥을 먹여 준 사저는 그 아이가 자신이 걸고 있는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보고 휴지로 입을 닦은 다음 몇 번이나 거듭해서 키스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펄펄 쏟았다.

식사가 끝난 다음 복지관의 이아미 실장은 요리가 무척 맛있었다며 아이들을 위한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채식 뷔페는 모두들 처음 먹어보았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구요. 덕분에 저희 직원들도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SM 뷔페와 서울 센터는 이번 활동을 하는 동안 장애 아동들의 친진하고 맑은 영혼이 더욱 신에 가깝다는 것을 깊이 느꼈으며, 지상의 신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드렸다. 영원한 이 어린이들과, 이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채식 파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스승님의 자비가 굶주린 아이들에게 미치다

이 노란 위드야사 사형/ 발리섬 (원문 인도네시아어)



2005년 7월 지역 방송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텡가라(West Nusa Tenggara Province) 지역에 사는 5세 이하 어린이의 10% 정도가 영양 결핍과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Kwashiorkor-단백질을 포함한 식품 영양소 결핍으로 생기는 어린이 기능 장애)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이런 유형으로는 처음 알려진 것으로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명단과 거주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부 누사 텡가라 지역은 풍부한 쌀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들은 가난해서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없다. 아이들에 관한 뉴스를 들은 많은 인도네시아 동수들은 자카르타 센터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을 했다. 그래서 발리 센터의 두 사형이 구호 팀을 구성해 인근 발리 섬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활동을 했다.

2005년 7월 17일, 사형들은 서부 누사텡가라의 롬복(Lombok)에 도착해 지역 적십자 대원들과 함께 우유를 나눠주고 영양 결핍과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린 아동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적십자에 따르면 소아 영양 실조증은 부모들이 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일정량의 기본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을 보살필 사

람이 없기 때문에 눈에 일하러 가면 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물이나 먹일 뿐 다른 음식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쟁겔랑(Genggelang) 마을에 캠프를 세웠고 20명의 자원 봉사자들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했다. 이 지역에 있는 약 1,516명의 어린이들이 영양 결핍 상태였는데 건강 프로그램을 2주간 실시한 다음에는 어린이들의 몸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다행히 이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고 한다.

저녁이 되자 동수들은 같이 지내는 다른 사람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들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것에 기뻐해서 사형들은 견본책자도 나눠 주었다. 그날 밤 명상할 때 동수들은 멋진 체험을 했고 한 사형은 밤새도록 명상할 수 있었다.

2005년 7월 21일, 구호 팀은 동부 누사텡가라(East Nusa Tenggara)의 쿠팡(Kupang)에 도착해 이번에도 지역 적십자 대원들과 함께 아픈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나누어주었다. 쿠팡에서는 621명의 아이들이 영양 결



핼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다섯 살도 안 된 아이들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매우 협조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해서 동수들이 도착하자 마을을 안내해 주고 지역 건강 센터에도 데려다 주었다. 이곳 건강 센터는 주로 유아들의 예방 접종과 신체 검사를 하는 곳이다.

람복과 쿠팡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동수들은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고 주민들의 소박한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크게 마음이 놓였다. 스승님의 사랑이 언제나 람복과 쿠팡 주민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



포모사

신의 사랑이 완리의 노인들을 보살피다

타이베이 뉴스 그룹 (원문 중국어)

포모사 타이베이 동수들은 2005년 4월의 책 나누기 행사에 이어 8월 27일 완리에 있는 타이베이 현립 린아이 양로원을 다시 방문해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스승님의 출판물과 사진, 가피물, 월병과 생화를 그곳에서 선물했다. 지난 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곳의 실상을 많이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곳에 대해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다. 산 밑에 바다를 마주보고 지어진 린아이 양로원에는 60세 이상 된 의지할 데 없고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노인이나 신체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하던 날, 93세의 쉬칭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서 156호 잡지에 나온 자신의 사진을 보며 동수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쉬 할머니는 우리에게 스승님을 늘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침대 옆에 스승님 법상을 걸어 달라고 부탁했다. 85세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구오천웨이 할머니는 사저들에게 스승님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스승님 사진 뒤에 이름을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스승님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스승님의 사진을 예수님 사진 옆에 두고 두 분에게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오 할머니는 동수들이 친절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은 모두 정말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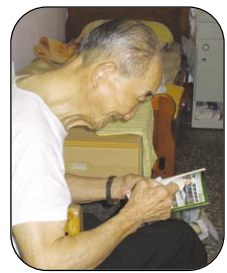
하고 천사 같아요. 여러분은 보면 볼수록 칭하이 스승님과 닮았어요.” 말

했다.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이 양로원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신께 기도 했고 누군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것을 신의 은총이라고 여겼다. 몸이 정정한 구오 할머니는 일어서서 사저들에게 절을 하며 특별히 스승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판 할머니는 좌우 어디서든 스승님을 볼 수 있도록 스승님의 사진을 자신의 침대 양쪽에 붙여 달라고 하며 스승님을 직접 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동수들은 할머니 숙소를 떠나 어느 동수의 집에서 식사와 명상을 하며 재충전한 다음 런아이 양로원의 할아버지 숙소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월병을 먹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가진 몇몇 할아버지들은 스승님의 책을 주의 깊게 읽었다. 특히 잔 할아버지는 양쪽 시력을 다 잃어서 앞을 못 보는데도 스승님의 잡지를 소중히 여기고 스승님의 법호를 외우려고 노력했다. 얼마 동안 스승님의 이름을 외우고 나서 그는 “칭하이 대사님”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신실함에 감동한 한 사저가 갖고 있던 워크맨과 건전지, 스승님의 불찬 테이블을 건네주며 이제 다 ‘스승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자 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하이 대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워크맨을 듣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더없이 행복한 웃음이 흘러 나왔다.

런아이 양로원을 떠나기 전, 그곳의 직원들은 앞으로 날마다 정오에 30분씩 방송 시설을 통해 모든 층

에서 스승님의 불찬을 틀겠다고 했다. 동수들은 양로원 방문을 통해 이곳의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이 스승님의 빛을 받도록 신성한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었던 것에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은 이제 날마다 스승님의 불찬을 들으면서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동수들은 또한 노인과 가까이 지내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인생 무상의 본질과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스승님께도 감사드렸다. 



창화

신의 사랑이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다

창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창화 센터 동수들은 2005년 8월 17일 창화 교도소를 방문해 영혼을 고양시키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행사에 참여한 백여 명 가운데 거의 모두가 18세에서 25세 되는 청년들이었다. 한때 복역 생활을 했던 우 사형이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면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좋은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체험을 재소자들과 함께 나누자 재소자들은 모두 우 사형의 진실된 말에 큰 감동을 받고 뜨거운 박수로 호응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의 호소

에 진지하게 화답했다. 그 가운데 세 명의 재소자는 우 사형이 차고 있던 염주를 기념으로 달라고 하며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자주 부처의 이름을 외우고 나중에는 수행을 하여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



자 모두들 주의 깊게 경청했으며 이어진 방편법 전수 시간에도 배우려는 열광적인 박수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

타이난

천국의 양식을 감옥에서 나누다

타이난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7월 27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난 센터는 밍더 개방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스승님의 2000년 네팔 카트만두 강연인 ‘깨달음과 무지’를 상영했는데, 재소자와 직원들 모두 열심히 시청했다. 이후 재소자들은 방편법을 배웠다. 재소자들은 우리가 가져간 스승님의 경서와 뉴

스잡지를 매우 좋아해서 다음 번에 올 때는 더 많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 책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혼의 양식이거든요.”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육신은 묶여 있어도 영혼은 자유롭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타이난 센터 동수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밍더 개방 교도소를 방문하는 것 외에 타이난 교도소도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이로움에 대한 소감을 전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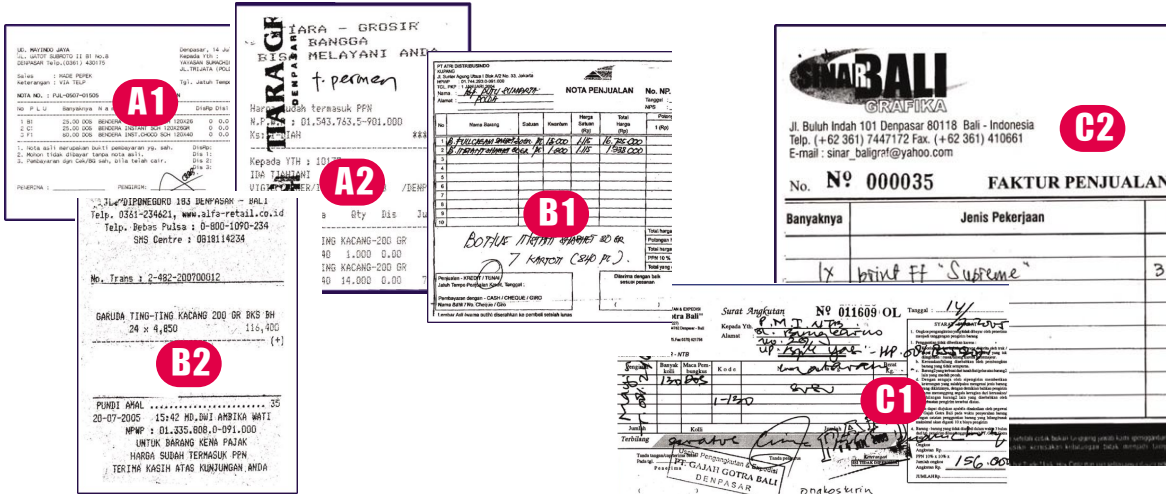
2005년 7월에 방문했을 때 동수들은 스승님의 도움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재소자 형제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모든 재소자들이 방편법을 배운 다음 아주 매우 편안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록 몸은 담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날마다 명상을 통해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이 값진 수행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희망한다. 🙏

인도네시아 람복과 쿠팡의 영양 실조 어린이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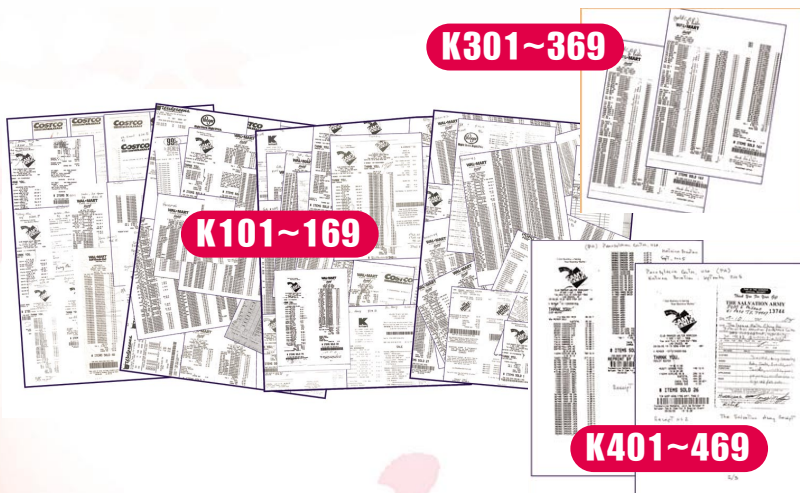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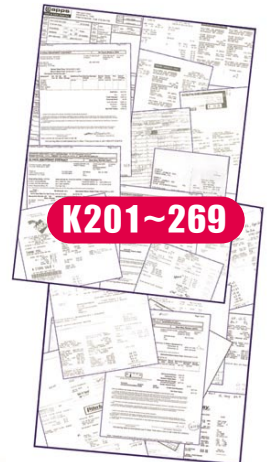
항 목	금 액	영수증
롬복: 분유와 사탕	19,644,890	A1~A2
쿠팡: 분유와 사탕	19,985,700	B1~B2
기타: 화물 운송비, 현수막 비용	636,000	C1~C2
총 계	40,266,590 (미화 4,238.59달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미국 달러)

항 목	금 액	영수증
음식, 물, 의약품, 청소 도구	80,657.28	K101~K169
운송비, 숙박비, 유류비	7,810.47	K201~K224
옷, 속옷, 양말, T-셔츠	1,429.85	K301~K302
텍사스 엘파소 구세군 본부에 기부한 기저귀, 유아 음식, 속옷, 스넥, 수건, 문구용품	2,283.000	K401~K402
기타: 전단지, 속달 우편비 등	602.00	K501~K503
총계	(미화 92,782.60달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밀어라

빈센트 응우옌 사형/ 미국 버지니아 (원문 영어)

“하느님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NLT 베드로 전서 1장 9절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자신의 오두막에서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방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더니 하느님이 나타나셨다.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며 오두막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보여 주시며 그에게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셨다.

그래서 그는 꿈쩍도 하지 않는 무겁고 차가운 바위에 어깨를 대고 온 힘을 다해 밀려고 애쓰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해 동안 그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밤마다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의 오두막으로 돌아오며 하루 종일 허탕만 친 기분을 느꼈다.

사탄은 그가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주입시켰다. “넌 오랫동안 저 바위를 밀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아.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거는 거지? 너는 절대로 바위를 옮길 수 없을 거야.” 사탄은 이렇게 이 일이 불가능하며 그가 실패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당연히 이런 생각들은 그를 더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이 일을 계속하기는 하되 최소한의 노력만 해도 충분할 거야.’

그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이 문제에 대해 하느님께 기도해 자신의 고민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하느님,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힘써 밀었는데도 이 바위는 0.5밀리도 움

직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왜 안 되는 거지요?”

그의 말을 들은 하느님은 자비롭게 답하셨다. “내 벗이여, 오래 전 너에게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온 힘을 다해 그 바위를 밀라고 하였지 그 바위를 움직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너의 일은 바위를 미는 것이었고 너는 이미 그것을 해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와서 전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정말 그러하나? 너 자신을 보아라. 너의 팔은 근육이 생겨 튼튼해졌고, 너의 등은 검게 탔으며, 너의 손 바닥에는 굳은살이 박혔으며, 너의 다리는 우람하고 단단해졌다. 바위를 미는 사이에 너는 많이 성장했고 전에는 없었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네가 바위를 움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소명은 순종하고 바위를 밀어서 나의 지혜에 대한 너의 믿음과 신뢰를 연마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너는 해낸 것이다. 벗이여, 이제는 내가 바위를 움직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신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두뇌로 신이 원하시는 바를 해석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실 신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신께 순종하고 신을 믿는 것이다. 부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연마하되, 산을 움직이는 것은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 원문 출처:

<http://www.stmichaelswayne.org/insp/push.html>

<http://www.moytura.com/reflections/push.htm>

<http://www.marriagemissions.com/spiritual/push.php>

<http://www.coolredfiero.com/insperationalstories/amanas.html>

<http://www.bible.net/showcase/showArticle.html?subID=111&type=Story&s=>

전세계 연락처

■ 아프리카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난: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모리셔스:

포르투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ifu_liang91@hotmail.com
포르투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필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regresando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아울/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아울/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아울/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l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멕시코: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 미국: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dedj@cox.net	* 뉴욕:
* 캘리포니아: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ilin54@hotmail.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 오하이오: Mr. Gilbert Rivera/ 1-9513-226-3686/ wisdmeye@ao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gmai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 오리건: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ffico@yahoo.com	* 텍사스: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l2k4@gmail.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 플로리다: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597@yahoo.com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 Nguyen@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 인디애나: Ms. Josephing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 캔터키: 센터/ kycenter2000@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캔터키: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 워싱턴: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매사추세츠: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 푸에르토리코: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카위/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아시아 ■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포모사: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 미주리 :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미아오리/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전주/ 신현창/ 063-254-5824
★ 홍콩:	광주/ 센터/ 062-525-7607
홍콩/ 센터/ 852-27495534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인천/ 이재문/ 032-812-1250
★ 인도네시아: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청옥/ 센터/ 054-673-1399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 라오스: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 마카오: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cll.com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love@yahoo.com.hk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 말레이시아: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팔라렘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팔라렘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sby.dnet.net.id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laring.my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euk.com	★ 몽골:
★ 일본: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nth.biglobe.ne.jp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kss@mptmail.net.mm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네덜:
★ 대한민국: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출판사/ 043-543-9250/ chinghaikpt@yahoo.co.kr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포카라/ 센터/ 977-61-28455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서울/ 유태인/ 02-795-3927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 싱가포르:
부산/ 송호준/ 051-903-4552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부산/ 황상원/ 051-805-7283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스리랑카:
대구/ 김익현/ 053-633-3346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_nbt@zeynet.com
대구/ 한선희/ 053-767-5338	★ 태국: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eon@yahoo.co.kr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66-2-5914571/ edasnlad@stou.ac.th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wanliy@gmail.com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콘칸/ 센터/ 66-43-378112	★ 이탈리아:
송크라/ 센터/ 66-74-323694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유럽■	★ 아일랜드:
★ 오스트리아: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 노르웨이:
비엔나/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오슬로/ Ms. Marte Hagen/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벨기에:	★ 폴란드: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ga@wp.pl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불가리아:	★ 포르투갈: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러시아:
★ 체코: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 슬로베니아: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 핀란드: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헬싱키/ Mr.Jussi Pohjolainen/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	★ 스페인:
헬싱키/ Mr.Hannu Hovilainen/ 358-40-734-3516/ helsinkicenter@yahoo.com	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
★ 프랑스: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알사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c@infonie.fr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파리/ 센터/ 33-1-4300-6282	★ 스웨덴:
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llancelot@celestialfamily.net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 독일: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rigoril.Guinzbourg@gmx.d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 스위스: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yahoo.de	★ 영국:
★ 그리스:	임스워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i@matters19.freereserve.co.uk
★ 네덜란드: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 헝가리: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freemail.hu	★ 스코틀랜드: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 오세아니아 ■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 호주: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lde@hotmail.com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lnoforquanyinsydney@yahoo.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lisshop/ 61-7-3901-6235	★ 뉴질랜드: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ne@yahoo.com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 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 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51-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888@hotmail.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의 은혜

원원라이 라칸디 사저/ 독일 뮌헨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모든 존재의 연인
우주 만물의 본질
그리고 천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내 가슴은 당신과 하나이길 갈망합니다.

모든 창조물 속에서
모든 중생들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돌보시는지
황혼에서 새벽까지 보호하고 계시는지
언제든 당신을 보고 만납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하는 건 달라요.
사랑하는 당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당신 발 옆에 앉아 있노라면
내 가슴엔 갈망이 출렁이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본성의 본질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 얼마나 있어야
다시 한 번 당신 발 옆에 앉을 영광이 주어질까요?
기적 중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것.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베푸신 은혜는
점점 더 커지지만 하고
당신이 주신 은혜에
매일 감사하기만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를 이 우주 어디에 존재케 하시든
그곳이 천국이든 인간세계든
제가 바라는 단 하나의 바람은
제 안에, 제 곁에 계시는 당신의 존재를
언제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소서.
제 안에 당신이 있고, 당신 안에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진정한 사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ES105A <영어 + 스페인어 통역>
신은 사랑과 용서, 은총 자체이다
 1989. 9. 3. 코스타리카 강연

내용 요약: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과 우리를 고양시키는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고양시키는 힘을 찾는 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힘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되돌아 오게 되어 결국엔 신의 왕국이나 더 높은 문명세계에 대해 알 수 없을 것이다. 예수, 부처, 다른 위대한 스승들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고양시키는 힘과 연결시키기 위해 서인 것이다.

CD-EG745 <영어>
세상에 공헌하기
 스승님과 화상회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휴스턴/ 싱가포르>
 2002. 7. 21./ 7. 28./ 8. 11.

CD-EG746 <영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스승님과 화상회의
 <캐나다/ 헝가리 유럽 선>
 2002. 8. 4./ 8. 17.

CD-EG748 <영어>
겸손한 마음의 시작
 스승님과 화상회의
 <대한민국 서울/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호주 시드니>
 2002. 8. 24./ 8. 25./ 8. 31.

CD-E718 <영어>
사랑은 항상 좋다
 2001. 6. 7.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CD-E719 <영어>
나쁜 습관 극복하기
 2001. 6. 9.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CD-EG734 <영어>
스승님의 손길
 2001. 12. 26.-27.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CD-EG735 <영어>
용감하게 변화하라
 2001. 12. 28.-31.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영혼의 고향 

MP3-CG02 <중국어>

주요 내용:

1. 자연 재해는 인간의 의지로 일어난다
1988. 10. 13.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2. 천백억 화신
1988. 10. 15.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3. 우주 행성 이야기
1988. 10. 17.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4. 인생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말라
1988. 10. 18. 포모사 타이베이 단체명상
5. 불상과 사리를 숭배하는 결과
1988. 10. 18. 포모사 타이베이
6. 시크 교주 이야기
1988. 10. 19. 포모사 가오슝 단체명상
7.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
1988. 10. 20.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8. 영적 빛의 범주
1988. 10. 20.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9. 말먹이 사과 이야기
1988. 10. 20. 포모사 타이난 단체명상
10. 왜 입문할 때 서로 다른 빛을 보는가?
1988. 10. 22.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11. 스승에 대한 최고의 공양은 영적 수행이다
1988. 10. 23.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MP3-CL03 <중국어>

주요 내용:

1. 1989. 1. 4./ 1. 5./ 1. 6. 포모사 타이베이 강연
 - 관음법문을 수행하려면 드높은 용기와 신념이 있어야 한다
 - 신·구·의를 연마하는 수행
 - 이 세상 너머의 수행법
2. 1989. 1. 15./ 1. 16./ 1. 17. 포모사 지아이 강연
 - 고속도로 법문
 - 어떤 것이 마야의 덧인가?
 - 명리를 구하는 것은 수행 진보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새로 번역된 칭하이 무상사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에스토니아어



Kõrgeim Meister Ching Ha

VAHETU VALGUSTUMISE

Tasuta tutvustav brošüür

타밀어



உள் ஒளி மெய்ஞ்ஞானக் கருவி
உடனடித் திறவுகோல்
இது ஒரு இலவசப் பதிப்பு

라오스어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ຂໍ້ກ່າວແຈ້ງການຮູ້ແຈ້ງ ທີ່ມີ

ທັງສອງຝ່າຍ ແຈ້ງໃຫ້

리투아니아어



Vyriausia Mokytoja Ching Hai

Raktas į Momentalių Nušvitimų

[vadinė knygelė

Nemokama kopija